

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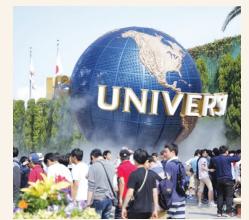


CONTENTS



MESSAGE

- 04 격려사 | 이사장 김석한
- 05 발간사 | 교장 서정규



BOIN HOT ISSUE

- 06 사진으로 보는 2013 보인 천년제
- 10 제6대 학생회를 소개합니다!
- 13 Photo & Poem | 나의 친구야



BOIN DREAM

- 14 1학년 수학여행 |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 20 소록도 창의적 체험활동, 사진으로 보기
- 24 창의적 체험활동 | 고승덕 변호사의 ABCD 공부법 특강
- 26 대학탐방 | 가깝고도 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당신의 선택은?

BOIN PEOPLE

- 31 선생님, 우리 선생님❶ | 마초의 매력 가득한 한만준 선생님
- 34 선생님, 우리 선생님❷ | 새로 부임하신 국어과 나지윤 선생님
- 37 선생님, 우리 선생님❸ | 새로 부임하신 영어과 이귀연 선생님
- 40 선생님, 우리 선생님❹ | 새로 부임하신 수학과 이영인 선생님
- 42 농촌체험활동 | 농촌체험 탑곡리 이성기 이장님
- 45 만나 보고싶었어요❶ | 보인고의 숨은 공신 이순재 아주머니
- 46 만나 보고싶었어요❷ | 보인고 매점의 혁명 ○○○ 매점 누나
- 48 동아리활동 | 밴드부 CROSSROAD를 파헤친다



BOIN ACTIVITY

- 50 보인고 인성관(기숙사) 大해부
- 52 컬쳐 로드스토리 | 2013 서울 모터쇼
- 56 기자의 눈❶ | 2014 브라질월드컵
- 61 기자의 눈❷ | 내게 맞는 축구화는?
- 64 MOVIE | 영화 '명왕성'을 말하다
- 65 FOOD | 바쁜 고등학생을 위한 간단 수능요리!
- 66 One+One | 보인즈 갓 텔런트+ 올킬씨운드
- 69 Photo & Poem | 흔들리며 피는 꽃



BOIN NETWORK

- 70 외부 앙케이트 | 1,000명에게 알아보는 보인고의 이미지
- 72 학생 앙케이트 | 다채로운 우리 보인의 상상력 평광
- 76 선생님 앙케이트 | 선생님에게 물어봐~!
- 77 동문시 | 일송목인 김태환 동문
- 78 2013학년도 1·2학기 학급 정부회장 가로세로 날발맞추기!!
- 79 편집후기

격려사

자신감을 버리면 세상이 곧 나의 적이 된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최적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학교가 더욱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성과 실력이 조화로운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자사랑 장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라는 보인의 교훈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노력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인성과 실력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참된 교육의 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한 우리 보인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의 선두에서 '학교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의 모델'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이기에 보인고등학교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보인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후배들에게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도전하는 보인의 전통을 지켜 주기를 당부합니다. 덧붙여, '변화'와 '발전' 이란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반성으로 2014년의 시간이 되돌아 아쉬움이 없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교지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Ralph Waldo Emerson은 '만약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되어버린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마음이 읊挫되며 행동이 소극적으로 표출됩니다.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이를 수 있는 일도 역시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없고, 실패의 과정 또한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치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등과 꼴등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성적으로 매겨진 순위가 '성공'이라면 대다수는 실패자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은 비록 성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견해, 그것이 우리 이웃과 사회의 발전에 조그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를 발전의 터전으로, 모든 재학생들이 각자 목표한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열정을 쏟아 쫓아가고 싶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위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아닌, 내가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세요. 스스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최적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학교가 더욱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성과 실력이 조화로운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자사랑 장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라는 보인의 교훈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노력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교훈을 실천하는 '보인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올 해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교지를 가득 채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학교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격려사를 마칩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석한

발간사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재도약하는 한 해



2014년 갑오(甲午)년이 밝았습니다. 진취적이 고 역동적인 청마(青馬)의 기운을 받아 우리 보인 고가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인고는 '일신(日新)'의 모습으로 주변을 놀 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사고 완성기인 작년에는 서울 우수 대학에 높은 진학률을 보였으며, 2014년 신입생 모집에서는 2.27: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서울 지역 자사고 남학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언론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우리 보인에 대한 주변의 신뢰와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보인고 발전을 위해 혼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이사장님과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해온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이전의 성과를 발판삼아 재도약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올 한 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인고의 앞날은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위해 정진하며,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선생님들은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학교가 좋고 선생님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

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꿈꾸던 것을 이루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보인고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 발전에 공헌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지에는 보인고 학생들의 1년간의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보인 천년제, 수학여행, 창체활동, 인터뷰 등 크고 작은 학교 활동과 구성원들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 교지를 읽으면 1년 동안의 즐거웠던 학교 생활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활기 넘치는 모습들과 참신한 발상들을 보며, 보인고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2013년처럼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기 바라며, 1년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모든 보인고 학생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은 보인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더 큰 사회로 나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하며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시고 격려해주시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1년간 멋진 교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편집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발간사를 마칩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서정규

보인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선생님들은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학교가 좋고 선생님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꿈꾸던 것을 이루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2013 보인 천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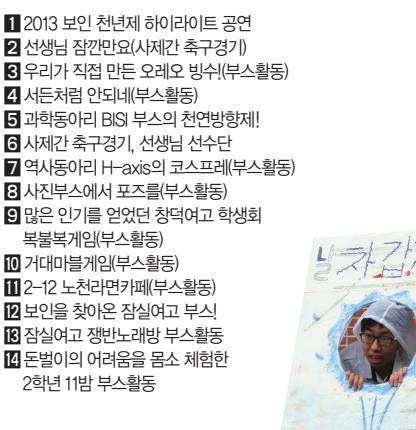
젊은 함성과 끼 가득했던

한 여름밤, 그 축제의 열기속으로



2013년 8월 30일, 우리는 우리들의 고교생활 추억리스트에 또 하나의 강렬한 추억을 추가하였다. 보인고등학교 학생회가 기획한 이번 축제는 학교생활에 오아시스같은 달콤함을 선사해 주었다. 아침 일찍 사제간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부스활동, 저녁 공연을 실컷 즐기며 보인 천년제를 만끽한 학생들! 그 소중한 순간들을 교지편집부 PLAYBOIN에서 담았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 하던가? 2013 보인 천년제의 시간들이 담긴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면 추억을 되살려 보시길~~!

사진 | 광용운 선생님, 사진기사 선생님, 김낙천, 김대현
정리 | 박한재, 편집부장 서동호



축제의 시작을 알렸던 사제간 축구경기!!

1학년 선수단은 전반전에, 2학년 선수단은 후반전에 선생님들과 그라운드를 누비는 영광을 누렸다.

오후 부스활동…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치열하고도 훈훈했던 사제간 축구경기가 끝나고 점심을 먹은 우리는, 부스로 달려갔다. 이번 2013 보인 천년제에는 여러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가 많았다. 구령대에 부스를 차리고 타투와 아이스티를 판매했던 학생회 부스부터 창덕여고, 잠실여고 등 여고 찬조 부스까지! 또한 각 반별 특색있는 부스도 빼놓을 수 없다. 간혹 휴대폰 번호 교환을 시도하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눈에 띄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7



10

- 1 2013 보인 천년제 하이라이트 공연
- 2 선생님 잠깐만요(사제간 축구경기)
- 3 우리가 직접 만든 오레오 빙수(부스활동)
- 4 서든처럼 인도네(부스활동)
- 5 과학동아리 BISI 부스의 천연방향제!
- 6 사제간 축구경기, 선생님 선수단
- 7 역사동아리 H-axis의 코스프레(부스활동)
- 8 사진부스에서 포즈를(부스활동)
- 9 많은 인기를 얻었던 창덕여고 학생회 복불복게임(부스활동)
- 10 거대마늘게임(부스활동)
- 11 2~12 노조나라경기대(부스활동)
- 12 보인을 찾아온 잠실여고 부스
- 13 잠실여고 창밖노래방 부스활동
- 14 돈벌이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2학년 11팀 부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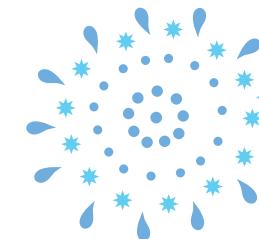
14

사진으로 보는
2013
보인 천년제

저녁 공연!...하얗게 불태웠던 순간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고 먹거리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부스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 비록 부스체험은 끝났지만 그 다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공연 순서는 아래와 같다.



- 01_보인고 El Sistema
- 02_보인고 교사밴드 – 10PM
- 03_보인고 풍물반 – 다스름
- 04_문현고 Tricky
- 05_보인고 응원단 – O.C.N
- 06_보인고 RAP
- 07_청담고 Ambition
- 08_보인고 씨스루
- 09_보인고 라쿤보인즈
- 10_진선여고+은광여고+숙명여고 댄스연합
- 11_보인고 스테이지 MAGIC SHOW
- 12_동대부여고 미류
- 13_환상의 훈남 보컬 듀오 (알고 보니 축구부로 밝혀진.)
- 14_보인고 밴드부 – CROSSROAD(1학년)
- 15_보인고 밴드부 – CROSSROAD(2학년)

이날 2부 진행은 5대 학생회장인 김동규, 부학생회장 강명석 학생이 맡았다.

먼저 마음 같아서는 2,543여 장에 달하는 사진들을 모두 싣고 싶지만 지면상 좋은 장면만 쓴 것에 양해를 구한다. 백년 전통의 보인, 천년을 이어갈 보인! 보인 천년제,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타 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하루라 정말 뜻 깊고 재미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공부도, 운동도, 끼기도 충만한 다재다능한 보인인들의 진면모를 드러낸, 2013 보인고 생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었던 보인 천년제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 날의 기억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축제 2년에 한번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2015 보인 천년제가 기대된다! 輔仁



- 14_2013 보인 천년제 공연에 열광하는 학생들, 호응도 100%
- 15_수고한 학생회에 박수를!
- 16_사물놀이반 다스름의 훌륭한 공연
- 17_교장선생님도 교감선생님도 함께 즐겨요~ (저녁공연에 참석한 교장, 교감 선생님)
- 18_공연의 시작을 알린 보인고 El Sistema
- 19_춤비는 실준했다(정택여고+숙명여고 댄스연합)
- 20_라쿤보이즈' 재치있었던 저녁공연
- 21_여고 댄스부의 습격 (진선여고+은광여고+숙명여고 댄스연합)
- 22_청덕여고 밴드부의 합세로 분위기는 폭발직전까지!!
- 23_보인고 교사밴드 – 10PM
- 24_크로스로드의 등장에 락페스티벌 공연장이 된 대주관!
- 25_박력 넘쳤던 OCN의 중간 공연



지난 2학기부터 출범한 제 6대 학생회의 제 1 목표는 '소통'입니다. 전 학생회부터 강조해왔던 단어인 '소통'은 어쩌면 지겹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 정책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별반 달라진 것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저희는 이번 임기동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가치가 바로 '온전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제 6대 학생회를 기점으로 학생 여러분의 의견과 학교의 진의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실천력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글 | 제 6대 학생회 정보부 부장 정하민 · 정리편집부장 서동호



소통이 시작되는 종이

이번 제 6대 보인고등학교 학생회가 할 일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의서' 운영입니다. '학의서'란 학교 내 모든 학급의 게시판에 붙어 있는 제안서로서, 학생들이 학생회에게 자유롭게 학교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한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학의서는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매주 학생회에서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기존 방식과 다른 의견 수렴 방식입니다.

임기 초, 학생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업무도 바로 '학의서 운영'이었습니다. 제안서가 각 반마다 비치되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였고, 문화소통부의 관리를 통해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보인고등학교의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시해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학교 변화의 시작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는 더욱 더 분발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결정하는 교실, 그리고 이를 위한 모임터

여러분은 지난 제 5대 학생회가 주최했던 학생의회를 기억하시나요? 비록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시행되진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학생의회의 주된 의의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의회가 완전히 제도화된 기구로서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학생의회의 운영을 위해 학생의회 상임위원회를 선발하여 전체적인 진행과 의결이 매끄럽도록 학생회에 편입시켰으며, 지금부터는 학생의회가 실질적으로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쥘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의회가 학생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운영을 위한 매개체로 상임위원회를 선발하여 두 조직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회의 운영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학의서를 통해 수합된 의견을 학생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야만 한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기획안으로 만듭니다. 학생의회는 이런 기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구체적인 실행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교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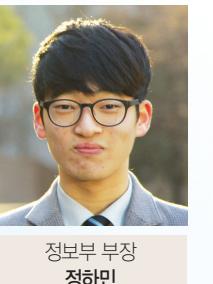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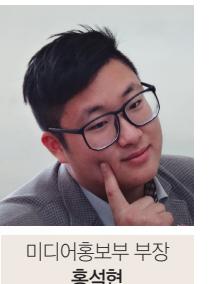
대표성을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

여러분들은 혹시 학생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등 학생회라는 조직의 투명한 운영 여부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가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6대 학생회는 주 공약인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민원 접수 등의 업무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실제로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활동이 '학생 캠페인'입니다. 보인고등학교에서는 특이하게도 학생회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과 바람직한 행동양식의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회부터 '깨끗한 학습 환경 마련', '단정한 교복 착용'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여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辅仁

제6대 학생회 조직도

제 6대 학생회는 총 3개의 실(室) 아래 6개의 부(部)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의회 상임위원회도 학생회에 포함됩니다. 서기실(실장 이경섭) 아래 내무지원부, 기획관리실(실장 송의현) 아래 정보부, 문화소통 1부, 문화소통2부, 종합지원부를 두고 있으며 공보관실(실장 서동호) 아래 미디어홍보부, 디자인부가 있습니다. 학생의회 상임위원회는 학생회에 귀속되지 않고 별도로 활동합니다.

부학생회장
이기창학생회장
채제우1학년 부학생회장
김우식서기실 실장
이경섭기획관리실 실장
송의현공보실 실장
서동호내무지원부 부장
장주원정보부 부장
정하민미디어홍보부 부장
허석현문화소통 제1부
부장
고경찬문화소통부 제2부
부장
박찬동종합지원부 부장
민병훈학생의회 상임위원
(2학년) 한석진학생의회 상임위원
(2학년) 임채민

제6대 학생회 회장단

학생회장 채제우

부학생회장 이기창

1학년 부학생회장 김우식

서기실(실장 이경섭)

- 내무지원부 :** 저희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방 지원 임무를 맡습니다. 내부 기록들을 관리 및 보관하기도 합니다.
부장 : 장주원, 부원 : 박현성, 정환우

기획관리실(실장 송의현)

- 정보부 :** 학생회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 즉 보고서 그리고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며 문서 체계의 구조화를 지향합니다.
부장 : 정하민, 부원 : 권도훈, 이원재
- 문화소통부 :**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도맡아 처리합니다. 학교 내 의견을 수렴하는 학의서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 문화소통부 제 1부
부장 : 고경찬, 부원 : 맹상열, 최근우
- 문화소통부 제 2부
부장 : 박찬동, 부원 : 여인규, 최원진
- 종합지원부 :** 문화소통부와 비슷하게 학생들을 대면하는 일을 하지만 주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장 : 민병훈, 부원 : 고대원, 김윤호, 김익희

공보관실(실장 서동호)

- 미디어홍보부 :** 학생회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며 포스터 제작이나 영상물 기획 등 미디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부장 : 허석현, 부원 : 임성록
- 디자인부 :** 분야의 제한없이 학생회 행사에서 필요한 디자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부원 : 박현채, 박정우

학생의회 상임위원

- 학생회와 학생의회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두 단체 간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위원 : 임채민, 한석진, 김민준, 김인재



나의 친구야

이해인

오늘도 역시 동쪽 창으로 해가 뜨고
우린 또 하루 해를 맞이했지
얼마나 좋으니
빨랫줄엔 훨 빨래가 팔랑 거리듯이
우린 희망이라는 옷을 다리미질 해야겠지

우리 웃자 기쁜 듯이 언제나 웃자
우린 모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을 향하여
웃음 웃어야 하는 거지
계절이 가고 오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얹혀 가겠지만 우리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도록 하자

친구야!

너와 나 같은 세상 아래서 만나진 것만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서로 어깨동무를 하자꾸나
너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너의 등불이 되어 너의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너의 마스코트처럼
네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우리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듣기 좋고 감미로운 음악 같은 사람이 되자



1



2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그들을 이해할수록 더 잘 볼 수 있다



우리 1학년은 입학 후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었다. 갑자기 밀려드는 보인고의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3월 사설 모의고사, 또한 4월 초의 중간고사까지! 아, 이게 바로 고등 학생의 생활이구나 실감 할 품에, 우리는 학기 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 갔던 경주나, 중학교 때 갔었던 제주도 같은 국내가 아닌, 바로 해외.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삼국 중의 하나, 나름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그 수학여행의 실감나는 현장을 <PLAYBOIN> 1학년 부가 직접 취재해 왔다! 1학년 새내기들의 일본 기행문! 지금 시작합니다!

예절이 엄격한 나라

고기 뷔페에 도착한 우리는 흥분했다. 맛있는 고기를 즐울 지어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또한 고기만이 아니라 초밥과 여러 가지 주전부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당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또 배웠다. 일본에서는 배의 80%만 채우고 음식은 절대 남기지

1일차 고베 일본에 도착한 우리들

글 | 이지석 · 사진 | 박현채

우리의 이웃나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섬나라. 그렇다, 바로 일본이다. 이번에 운좋게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 우리 학년의 목적지 설문조사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일등을 차지했다. ‘일본’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진? 일제시대? 한일전? 우리는 이러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일본에 갔다. 그리고 이 글이 우리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다를 건너가며

우선 우리는 3개의 조로 나누어 공항으로 출발을 하였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자 출발한 우리들은 오사카 근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가 일본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엄청난 정적. 그리고 질서. 우리는 그사이 이를 모노레일을 타고 지나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 버스에 올랐다. 가이드 선생님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셨다. 일본은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하는 나라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이 매우 어마어마하다고 하셨다.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고 고기뷔페를 향한 버스 안

에서 방금 지나온 간사이국제공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육지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큰 바위를 집어 넣어 만든 공항이라고 한다. 바다에 바위를 넣어 만들었다면 분명 무너져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지만 간사이국제공항은 “잭키”라는 것을 곳곳에 설치하여 공항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다시 끌어 올린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고기뷔페 집에 도착했다.

않는 것이 식사예절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식당 서비스가 거의 없다. 밑반찬을 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김치와 단무지도 돈을 내고 먹어야 하며 철판도 교체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간 우리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바로 일본 화장실 휴지는 물에 녹아 변기에 바로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화시설이 잘 되어있어 화장실 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왔다.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고베로 이동하였다. 오늘은 고베를 둘러본다고 가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고베의 한 마을을 구경하고 우리는 근처 ‘이진칸 거리’라는 곳으로 갔다. 이진칸 거리를 구경했다. 이진칸은 옛날 서양인들이 일본에 와서 지었던 건물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약간 건물도 높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곳은 서두르게 관광하고 왔다. 이진칸은 일본에 남아있는 서양의 문화들이 집결된 곳 같았다.

다음은 고베 차이나 타운에 갔다. 우리나라에도 차이나 타운이 있듯이 일본 고베에도 차이나 타운이 있었다. 입구부터 보이는 여러 중국 동상들이 우리를 반겼다. 차이나 타운에는 대부분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가 줄을 지었다. 우리나라 차이나 타운이 많이 한국화 되었듯이 일본의 차이나 타운도 많이 일본화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치파오를 입은 사람들,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나는 차이나 타운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 꽤 색다른 경험을 했다.

우리는 다시 입구에서 모였다. 하지만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말소리가 매우 컸다. 일본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게 되면서 지나가는 일본 행인들에게

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도 일본에 왔으니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했고 그 상태로 메리肯 파크까지 걸어갔다.

찌는 듯한 날씨에 조금 힘들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괜찮았다. 우리는 메리肯 파크 중에서 메모리얼 파크로 갔다. 1995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넘어져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다시 복원을 하였지만 그곳은 복원을 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은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진의 무서움을 깨닫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모자이크 몰에 갔다.

애니메이션의 강국

모자이크 몰은 여러 가지 상점들로 이루어진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의 아기자기한 상점들에 감명을 받았다. 그때가 해가 질 무렵이라 그런지 분위기 또한 매우 좋았다. 상점들은 대부분 만화와 관련된 것을 팔고 있었다. 어떠한 상점은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팔기도 했었다.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이 해가 떨어졌다.

우리는 다시 입구에 모여 호텔로 이동했다. 호텔은 아주 굉장히 아름다. 노란 불빛이 아른 거리는 로비에는 거대한 계단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우리는 10층을 전후로 각각 방에 들어갔다. 나는 네 명이 쓰는 방에 들어갔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야경과 푸신한 침대 4개, 화장실과 샤워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다. 몇몇 애들은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와 수다를 떨다 잠자리에 누웠다. 이렇게 눈을 감으며 일본에도착한 우리의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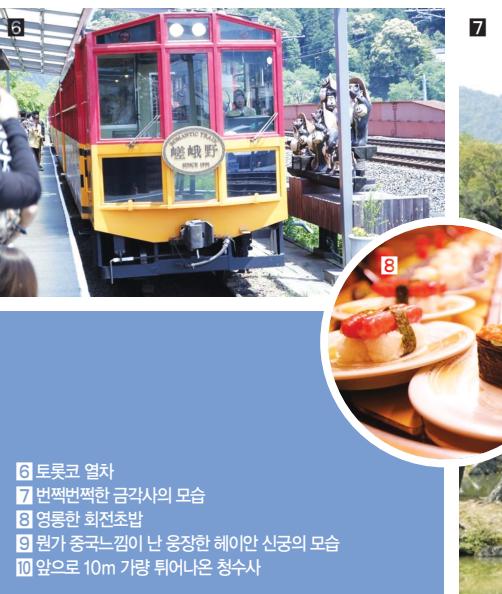


- 1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일본주택
- 2 고베에 있는 차이나 타운 뷰온세이 중국을 연상시킨다.
- 3 이진칸 거리의 높고 고풍스러운 건물들
- 4 지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메모리얼 파크
- 5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을 파는 모자이크 몰

2일차 교토와 오사카 본격적인 일본여행

글 | 유한준 · 사진 | 박현재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그들을 이해할수록
더 잘 볼 수 있다



6 토롯코 열차
7 번쩍번쩍한 금각사의 모습
8 영롱한 회전초밥
9 원가 중국느낌이 난 웅장한 헤이안 신궁의 모습
10 앞으로 10m 가량 튀어나온 청수사

어제 처음 일본에 와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본격적인 일본 투어를 하러 밖으로 나왔다. 오늘 갈 곳은 교토다.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28~30도를 옷도는 매우 더운 날씨인 교토는 한여름이 되면 40도를 넘어갈 정도로 덥다고 한다. 우리는 그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겹게 관광을 시작했다.

부릉부릉 토롯코열차

오늘은 제일 먼저 토롯코 열차를 타기 위해 아라시야마 토롯코 열차역으로 갔다. 토롯코 열차는 아라시야마의 명물 관광 열차로 토롯코 사가역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운 호즈강을 지나 산을 가로질러 토롯코 카메오카역까지 운행된다. 열차를 25분정도 탔는데 열차 옆으로 맑은 강과 푸르른 산이 우리의 가슴을 뻣뚫리게 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았다. 가을에 오면 단풍이 들텐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오다는 기분이 들었다.

향의 양식, 3층은 선실같이 비어있으며 꼭대기에 청동 봉황상이 세워져 있다. 1950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재건하였고 1987년 기부금으로 금박이 보수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참 번쩍번쩍하는 것이 떼어가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몇 년째 황금빛이 바래지 않고 누각이 빛나는 것이 이상하여 알아보니 매년 교토 시민의 세금으로 금박을 덧칠하고 있다고 하였다. 금각사를 사랑하는 교토 시민의 애정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은각사는 금각사와 비슷한 발음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착각하게 되는데 금각사는 금을 덧칠한 것처럼 은각사는 은을 덧칠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은각사는 아시카가 쇼군의 별장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금각사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속에서 어우러진 은각사의 모습은 금각사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역사속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헤이안 신궁

금각사, 은각사에 이어 우리가 간 곳은 헤이안 신궁이었다. 솔직히 교토가 너무 더워서 헤이안 신궁은 거의 헥헥 숨을 내쉬며 구경했다. 헤이안 신궁은 붉은 색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색이 바래지 않고 선명해서 참 신기했다. 그리고 웅장한 크기에 놀랐다. 옹

장하고 붉은 색이 많이 쓰여 중국의 느낌을 받기도 했다. 헤이안 신궁은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받은 곳이었다.

약수터가 있는 절, 청수사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청수사였다. 청수사는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만큼 가장 인기있는 방문지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 사찰은 여러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대웅전을 포함해 1663년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재건되었다고 한다. ‘청수’라는 이름처럼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려 오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한다. 오른쪽 물을 마시면 연인을 만나 이루어지고, 가운데 물을 마시면 훌륭한 자식을 두게 되고, 왼쪽 물을 마시면 장수한다고 한다. 실제로도 물 앞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바람에 우리는 물 마시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다. 오른쪽 물을 꼭 마시고 싶었는데.

청수사의 참 특이한 점은 절벽위에 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m 가량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기둥으로 만 지어졌는데 정말 놀라웠다. 그 마루에서 보는 교토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고 가슴이 뻣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3일차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 열도의 놀이공원 클래스

글 | 김지훈

즐거운 추억이 짹트고 생기가 맴도는 1학년 수학여행이 세 번째 날을 맞이하였다. 벌써 3박 4일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학년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아쉬운 표정으로 아침에 밤새 노느라 피곤한 몸을 달랠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기상시간은 7시. 집합까지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밤걸음만큼은 가벼웠다. 바로 오늘의 일정 때문이었다. 오늘은 일본 오사카에서 제일 큰 놀이공원을 가는 날이었다. 하루 온 종일 놀이공원에서 놀 생각을 한보인 고등학교의 새싹들은 신나서 순식간에 아침을 해치우고 집합장소로 모였다. 모두가 집합한 후 보인고 새싹들은 놀이공원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간 놀이공원의 이름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이다. 가면서 가이드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을 들어보면, 이 놀이공원은 오사카 시내에서 손꼽히는 놀이공원이며, 오사카 지역의 대표 관광소라고 하셨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로 많이 찾았다. 흑인, 백인 그리

고 황인까지, 지구촌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쭉~ 줄을 서고 있었다.

아무튼 우리는 길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입장하기에 앞서 표를 받았는데, 가격이 우리나라 놀이공원보다는 좀 부담스러웠다. 하루 입장권이 6000엔(한화 62000원 가량) 정도했다. 입장하면서 ‘얼마나 좋으면 입장료를 이렇게 받았나?’ 하고 생각하며 기다리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입장하였다.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웅장함에 한번, 이국적인 분위기에 또 다시 한번 놀랐다. 기대감에 부푼 우리는 빨리 놀이기구를 타려 걸음을 재촉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대표적인 요소가 3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쥐라기 공원’이다. 이 곳은 20인승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위적으로 만든 쥐라기 시대의 공원을 도는 것이다. ‘쥐라기 공원’의 특징은 우리나라 놀이공원의 ‘후룸라이드’와 비슷하다. 이 놀이기구도 물 위에서 운행되는데 더위를 날려주는 물줄기가 뿐 어져 나오거나 떨어질 때마다 사방으로 물이 튀었다.

이 놀이기구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면 큰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서 울부짖는데 소리가 압권이다. 그때 롤러코스터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밖으로 뛰쳐나온다.

11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그들을 이해할수록
더 잘 볼수 있다



- 1 보이고 학생들로 북적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
- 2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가득 찬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 3 영화에서 나온 법한 쥐라기 공원이 놀이기구로 재구성되었다.
- 4 웅장한 퍼레이드 쇼, 각종 조명과 불빛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 선사했다.



이때 물이 많이 튀어서 곤욕을 치렀던 친구들이 많았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놀이기구처럼 영화를 리메이크한 놀이기구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아 일본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모티브로 한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시어터 쇼인 ‘워터월드’이다. ‘워터월드’는 배우들이 이 놀이공원의 호수근처에 위치한 극장에서 쇼를 하는 건데, 스케일이 커서 신기했다. 어느 날 바다를 지키는 마을에 심술궂은 해적이 나타나서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친구들을 잡아가는 등 마을을 어지럽히자, 주인공이 남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마을을 구하는 것이 공연의 줄거리이다. 뻔한 시나리오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연극을 본 보인고 학생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바로 스케일 때문이다. 연극 도중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이나 조명탄, 그리고 공연 막바지에 추락하는 글라이더는 특히 최고였다. 글라이더가 추락해서 폭발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로 불이 나면서 터졌다. 열기가 공연을 보려온 사람들의 얼굴까지 끼쳤다. 그 밖에 배우와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장면들이 많아 흥미로웠다. 마지막은 퍼레이드와 코스프레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거리에는 일본인들이 즐겨 한다는 일명 ‘코스프레’가 흥했다. 코스프레는 만화 캐릭터나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의 복장이나 분장을 비슷하게 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마릴린 먼로, 헐크, 스파이더맨 등 여려 영웅들을 모티브로 분장한 것을 보니 재미있었다. 보인고 새싹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이분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퍼레이드는 웅장했다. 일본 어트랙션 회사인 ART CORPORATION이 협찬하여 지원했는데, 엄청 큰 모형물들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만들어 화려하게 조명을 켜고 행진했다. 이 순간 보인고 새싹들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즐거워했다. 몇몇 친구들은 눈물이 복받쳐서 울기도 했는데, 잊지 못할 퍼레이드였다. 그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수학여행 3일 차가 막을 내렸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가지고 나왔다.

4일차 나라 일본을 떠나는 우리들

글 | 이자석 · 사진 | 박현채

드디어 일본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다. 마지막 날 우리가 간 곳은 나라이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여 버스에싣고 나라를 향하여 출발했다. 나라 중에서도 나라 동대사와 나라 사슴공원, 그리고 오사카성, 나라 사천왕사를 갔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갔던 곳은 나라 국립박물관이다. 이곳은 매우 많은 동상과 그릇들 불교 미술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전 물 내부는 사진 촬영이 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 그곳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나오던 우리는 매우 많은 사슴들을 보았다. 박물관부터 동대사까지가 사슴공원이었다.

입구부터 우리를 압도하는 굉장히 크기의 목조건물의 이름은 동대사 대불전이다. 이것은 높이가 47미터로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건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돈이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된다.

동대사에 들어가기 전 옆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손을 씻는 곳이었다. 그곳에 들어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매우 큰 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상의 이름은 본존 대불이라 하여 검색해보니 얼굴길이가 5미터, 앉은 키가 16m라고 한다.

500년 역사 지닌 오래된 오사카성

불상 바로 옆 기둥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구멍 안을 기어가고 있었다. 가이드 선생님은 아이들이 저 구멍을 통과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불상 바로 옆 조그만 가게에서는 매우 많은 부적들을 팔고 있었다. 건강, 행운, 돈, 성적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

다시 차를 타고 이번엔 유명한 오사카 성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는 매우 많이 걸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사카성의 방어 체계 때문이다. 한때 오사카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성을 두 개의 물로 둘러싸 침입을 방지하였다. 이 덕분에 우리는 다리를 통해 지나가야 했다. 물을 막는 돌담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의 성보다 더욱 높고

큰 바위로 만들어졌다. 다행히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봄에 가면 벚꽃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 빨디딜 틈이 없다고 하셨다. 오사카성은 500년의 역사를 지닌 오사카를 대표하는 오래된 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라 사천왕사는 나무가 많고 건물도 많아 운치가 꽤 좋았다. 근데 사천왕사는 백제의 성덕태자가 건립한 사찰이라고 한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매우 많은 거북이가 있었다. 바로 옆에 돌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3대 무대로 불리는 곳으로 문화재로 등록 되었다고 한다.

우리 반은 특별하게 면세점만 갔다.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 있던 제품은 바로 발 파스와 화장품이었다. 또한 여려 가지 인형들과 젓가락, 손톱깎이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를 싸게 팔고 있었다. 세금을 안 받는 곳이라 그런지 가격이 괜찮았던 것 같다. 다른 반은 도톤부리로 이동했지만 우리 반은 남아서 여유 있게 쇼핑을 하였다. 면세점을 뒤로하고 우리는 간사이 공항에 다시 도착했다. 이제 진짜 집에 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



- 15 난공불락의 거대한 오사카성
- 16 불교 미술이 매우 많이 소장되어 있는 나라 국립 박물관.
- 17 압도적인 크기로 칭광을 연출하는 동대사
- 18 엄청난 크기로 위압감을 주는 본존 대불. 만드느라 꽤 고생 졌 하셨을 듯.

로 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일본 기행문이 끝났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일본의 예절과 문화를 배워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흐트러진 질서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민들께 폐를 끼쳤을까 하는 걱정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어 옛날부터 같이 발전하고 교류하던 나라. 이제 잘못된 일들은 일본이 깨달아 사과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輔仁

남에게 주는 행복은 곧 나의 기쁨

소록도 창의적 체험활동, 사진으로 보기



1

용생 할아버지, 하복 할아버지, 오준 할아버지, 봉기 할아버지, 계현 할아버지, 소자 할아버지, 이만 할아버지, 윤동 할아버지, 명환 할아버지, 재완 할아버지, 정용 할아버지, 문철 할아버지, 순덕 할머니, 영숙 할머니, 정원 할머니, 옥림 할머니, 상기 할머니, 옥희 할머니, 명순 할머니, 정순 할머니, 옥단 할머니, 점숙 할머니, 봉순 할머니, 보원 할머니, 칠기 할머니, 근임 할머니, 경순 할머니, 환석 할아버지, 인석 할아버지, 종식 할머니, 귀순 할머니, 명순 할머니, 점생 할머니.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고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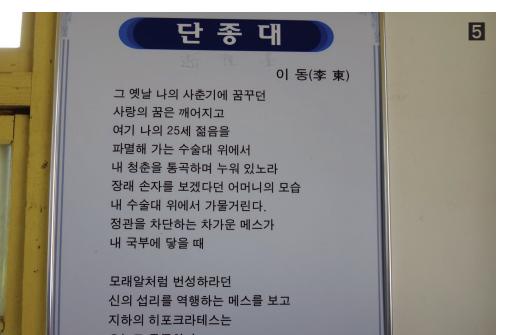
2



3



4



5

1 마냥 즐거운 소록도! 저 파란색 조끼는 단기봉사자를 나타내는 복장이다.

2 봉사 후 자유시간에 축구(STADIUM OF SOROKDO)

3 한센병은 낫는다. 이 탑 이름이 구리탑이다. '나병을 구한다' 해서 '구라' 탑인데 옛날 좋지 않은 처우를 받았던 환자들은 이것을 갖고 많이 비아냥댔다고 한다.

4 소록도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검사실과 감금실에 있는 정관수술대. 강제로 한센인들에게 정관수술을 시켰다고 한다.

5 옛날 한센인들의 치장을 실감할 수 있는 시 ~~



소록도

창의적 체험활동, 사진으로 보기



- 6 소록도 중앙공원은 한센인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곳이다. 예수님 동상과 성모 마리아 동상도 한센인들의 그 런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라. (1964년에 세워진 소록도 동성교회)
- 7 제1차 국립소록도병원 봉사활동 기념사진
- 8 소록도 봉사의 구심점 '선물의 집'. 봉사 끝나고 이곳을 찾을 때는 단연컨대 가장 완벽한 기분이다.
- 9 안녕, 소록도!
- 10 어르신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사진 허락은 꼭 받도록, 원쪽부터 장주원 군, 유인석 할아버지, 필자
- 11 소록도 명물, 자판기 속의 렌덤버튼
- 12 취킨파티 in 소록도, 빼놓을 수 없는 소록도의 묘미다
- 13 소록도 단기봉사자 사위실. 복불복으로 끔찍이가 뱃세를 부리고 있을 때도 있다. 따뜻한 물 나오게 하기가 어렵다는 게 함정



내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글귀가 하나 있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며 그만한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을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플라톤

바로 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소록도에서든, 어디에서든.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흐려져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다. 소록도 어르신들도 힘겨운 하루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모두 아이 같으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보살펴 드려야 한다. 확실히 힘들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의 보석 같은 경험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남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을 뼛속깊이 느꼈다. 輔仁

창의적 체험활동... 고승덕 변호사의 ABCD 공부법 특강

더 나은 방법을 위해 끝없이 찾고 시도하라

고승덕 변호사. 나는 그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공부법이란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해도 여러 개의 관련 게시물이 나오는 사람, 밤과 반찬을 모두 갈아 먹으며 공부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관왕을 이뤄낸 우리나라 노력 1등. 그런 괴물 같은 집념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는 고승덕 변호사였다.

글 | 흥윤기



고승덕 변호사는 나같이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될 만한 말을 해주었다. “꿈을 꾸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라는 말이었다. 자신감 넘치던 어렸을 때의 나를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는 것 마냥 길구하던 나한테 꿈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난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며 항상 ‘나 같은 나태한 종자는 범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동경하곤 했다. 글의 서두를 읽는다면 ‘고등학생이나 되는 놈이 저런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저딴 생각이나 하고 있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질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나는 누구든지 하찮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지 않는, 전형적인 의지박약형 인간이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할 수 없이 하는, 하는 척 하는,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이런 현실이 정말 짜증났고,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었다. 믿고 싶지 않은 비극 이야 세상에 널렸고 이런 개인의 사소한 현실 따위는 비극으로 쳐주지도 않지만은 나는 나의 상황을 ‘비극’이라고 이름 짓고 싶었다. 부진한 학업성취도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있을 때 고승덕 변호사의 ABCD 공부법 특강 신청 통신문이 나왔고, 지푸라기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라도 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한 것 이었다. 나는 지금은 강의를 듣고 난 후니까 말하는 것이지만 좀 부풀려서 나의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싶어서 갔다고 말하고 싶다.

안국역에 위치한 정독도서관으로 향하는 기로 하고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먼저 특강을 듣고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를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

형적인 뻔한 얘기만 늘어놓다 가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있었다. 푹 자고 일어난다면 ‘어jen 내가 왜 그렇게 심각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절박했었나보다. 사지에 몰린, 절벽 끝에 매달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 나보다 심각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독도서관으로 향했었으니 말이다.

저학년일 때는 나는 내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특강을 들으려 갈즈음의 나는 어떠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에 떨었던, 그 불안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정말 나는 특별할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씩 들곤 하였다. 교실 안만 둘러봐도 나와 똑같은 차림새로 수업을 듣는 녀석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이 학교에 나 같은 이들이 1500명은 있었다. 또 전국에는 수십만이 있었다. 난 한 알의 모래알이 아닐까? 저 경포대 해변가에 있는 그저 한 알의 모래알과 같지 않을까? 있어도, 없어도 다들 눈치 채지 못하는, 잘하는 것도 없이 평범하고 친구들이 공부하면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잖아 나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였다. 고승덕 변호사 특강을 갈 때 말이다. 정말 자존감이 말그대로 ‘땅과 친구 먹던 때’였던 것 같다.

내 힘들었던 마음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먼저 특강을 듣고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를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

고 싶다. 주된 키워드는 꿈, 목표, 노력이었다. 많은 고등학생들의 청강으로 신이 난 듯 한 고승덕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꿈 - 목표 - 노력) 이 3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이고 강조하여 말했다. 그 덕분에 목표설정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집에 가서 내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인생은 확률이 있는 게임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나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전할 것을 권유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나에게 알려준 그였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이 몰입하는 정도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간절하게 꿈을 꾸면 간절한 노력이 자연스레 동행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사고, 즉 생각의 틀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나같이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될 만한 말을 해주었다. “꿈을 꾸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라는 말이었다. 꿈이 생기고,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중간에 멈출 수 없을 정도의 집중을 하고, 모두가 말린다하더라도 자신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게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하였다. 저학년의 나를, 자신감 넘치던 어렸을 때의 나를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는 것 마냥 갈구하던 나한테 꿈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난 것이다.

그는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며 $E(\text{effort})=t(\text{time}) \times c^2$ (concentration) 공식을 소개했다. 성공은 노력한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하면서 들었지만 노력부족의 나에게는 쿵쿵쿵 소리 나는 큰 발자국으로 다

가웠던 공식이다.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공부했던 그의 말이었기에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공식을 소개받은 나는 바로 받아 적으며 ‘나도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긴장하면서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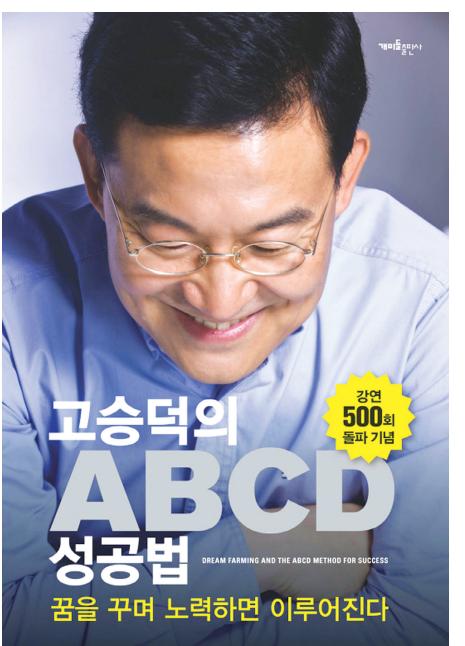
고승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특강의 큰 제목이기도 했던 ABCD의 뜻을 소개했다.

D는 Drop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을 D라고 했다.

C는 Commom 보통적인 사람. 시키는 것 만하며 의지가 없는 사람.

B는 Better 제대로 하는 사람. 계속 시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

A는 Ace 안 시켜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 계획하고 준비하며 미래지향적인 사람.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사람. 가치를 창조하고 남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얻는 사람.



Ace

Better

Commom

Drop

내가 저 소개를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나는 당연히 D형의 사람이구나’였다. 하지만! 특강을 듣고 난 후 지금의 나는 바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다. 아니, 조금이겠지만 바뀌었다. ‘확신할 수 있나’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겠다. 요즘은 자존감이 많이 살아났고 학교 가는 것 또한 즐거워졌기 때문이다. 왜냐, 꿈을 꾸며 노력한다면 내 인생의 안전바가 나를 지켜주리라고 이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D형의 사람인 나였기에 이런 변화는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특강을 신청했던 날 당시 ‘짜증 지대로였던 것이 어쩌면 정말 좋았던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외모로 나에게 희망의 비수를 꽂아준 고승덕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輔仁



가깝고도 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당신의 선택은?

오래전부터 매년 연고전 또는 고연전으로 불리는 스포츠 경기, 비슷한 대학 수준 등으로 영원한 라이벌이라 불리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사실,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사학을 대표하는 두 학교라서 양교간의 교류도 많고 학생들 간에도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대학탐방 코너에서 비슷하고도 다른 점 많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통합 취재해 보았다.

글 | 제민규

취재 | 제민규 도영현 이지석 박현채 (연세대학교 취재) · 장준영 설승필 박한재 민정원 (고려대학교 취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2학번으로 2학년 재학 중인 황윤기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13학번인 임지예라고 합니다.

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1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미디어학부 권오윤입니다.

Q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홍보영상학부로 발전이 된 것인데요, 신문, 뉴스, 시사, 방송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학과이고요 그 외에도 홍보, 마케팅, 그리고 PR이라고 하는 광고를 배우고, 영상에 대해서 단순히 찍는 것만이 아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각적인 아트라던가 영상·영화예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 영상이라는 3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미디어학부가 1965년도에 신문방송학과로 여러분이 아시는 신문이나 방송 쪽에 관련된 공부를 주로 하는 학과로 개설이 됐는데 신문, 방송분야가 미디어란 이름으로 영역이 넓 혀지면서 신문, 방송으로만 그려나가지널리즘으로 포함될 수 없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이런 걸 다 포괄하기 위해서 2009년에 언론학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미디어학부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Q 학사 과정이나 커리큘럼은 어떤지요.

연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교양과목이랑 ‘언론학 개론’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 3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문으로서의 언론학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비판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메시지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는 어떤 과정과 관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 배워요. 두 번째 커리큘럼은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지, 실제 사회와 연계를 해서 많이 배워요. 방송에서 방송기술, 방송제도의 변화 같은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케팅에 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죠. 너무 어렵나요? 그 외 과목으로는 게임 디자인과 문화라던가 ‘Interactive Storytelling’이라고 해서 게임 이용자와 게임을 설계한 사람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수업도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수업도 있어요.

고 보통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1학년 때 듣는 것이 실용영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여러분 원어민 교사랑 회화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을 저희도 1년 동안 배우고요. 그 수업이랑 또 사고와 표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글쓰기 수업을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듣고, 이제 미디어학부는 1학년 1학기에 미디어 입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이론들을 배우고, 2학기에는 미디어 글쓰기라고 해서 기본적인 기사를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기본전공 미디어학부 내선 광고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이 세부적인 전공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그 전공들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습,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드라마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Q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될 텐데요 진로에 관해 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연 기본적으로 신문방송학과에서 기대하는 직업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PD, 아나운서, 광고 홍보 전문가, 영상 전문가 정도예요. 이렇게 보통 6가지 직종이 전공을 살렸을 때 갈 수 있는 직종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으로 가기도 해요. 전공과는 다른 특기를 살려서 진로를 정한 경우도 있는 데요, 전

1 연세대학교 국제대학교관 전경. 연세대학교는 1886년 설립되어 진리와 자유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2 고려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전경. 고려대학교는 1905년 설립되어 연세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손꼽힌다.

3 고대 탐방 단체사진 가운데가 고려대 권오윤 선배님. 그리고 왼쪽부터 2학년 설승필 학생, 1학년 박한재 학생, 민정원 학생, 2학년 장준영 학생.



공에서 배우는 광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나 PD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직종에 가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광고 기획을 하는 곳이나 PR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반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방송3사와 메이저 신문사까지 합해서 한 해에 10명~15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자나 PD가 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깐 아까 설명 드렸던 광고 같은 일반 직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고 진로를 얘기하자면 지금 미디어학부가 재작년부터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생기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넓어졌어요. 원래 미디어학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처음엔 PD나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1, 2학년 때 실습을 통해 적게나마 접해보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많이 떠나가고, 보통 4학년 때까지 준비한 선배님들은 거의 몇 명 안 계셨었는데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PD쪽도 여전히 많이 가고 있고, 신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마케팅 분야와 같이 진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공연 예술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무대 설치 같은 분야로도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Q 학과의 자랑거리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연 저희 학부로서 자랑거리라면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대학교에 들어오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고등학교 때 자신의 특기 같은 것을 개발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저희 학교에는 끼가 특출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악 감독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이번 13



입시관련 얘기를 나누다 표정이 굳어버린 교집편집부팀.

학번 신입생이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왔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아리도 13개가 있고, 밴드도 저희 과에 2개나 있고, 정말 특기가 다양하고 호기심 많고 이것 저것 잘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 학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고 보통 동아리라고 그러면 전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미디어학부에는 단이라고 미디어학부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부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축구, 야구, 농구부가 하나씩 있고, 학회도 음악동아리가 합창동아리, 밴드동아리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무한도전 PD님이 활동하셨던 광고PR학회가 있고, 보도사진학회가 있고, 사회연구회, 영화연구학회, 잡지, 신문동아리도 있고 지금은 과내 동아리만 총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고려대 미디어 학부가 굉장히 공부를 잘 해야 오는 학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끼 많은 사람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다 많은 이유도 그렇고 끼가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많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재밌게 놀 수 있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재미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Q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 신문방송학과는 학벌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서 서열이 갈리게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론과 실무를 잘 접목해서 현장 진출 인력이 가장 많다는 것에 있어요. 전통적으로 서울대 신문방송학과는 학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거나, 외국에 유학 가는 분들도 많고요. 연세대학교 언론학부는 서울대 보다 입시 커트라인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다 라기 보다는 정말 본인이 현장 인력으로서 기자나 PD가 돼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적합한 학교지요. 연세대학교가 현장 인력 관련해서 기반이 제일 탄탄해요.

고 고려대학교에서 미디어학부를 개설하고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엔 ‘학과’ 였잖아요, 신문방송학과였는데 학부로 바뀌면서 독립된 학부로 한 단계 높아졌고, 이제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디어학부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는 추세입니다. 연세대도 언론홍보영상학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만큼 이제 신문방송으로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이젠 신문 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역이 확대 돼가면서 이런 넓어진 범위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부가 고려대 미디어학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런 미디어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고려대 미디어학부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외국대학과의 교류나 해외 인턴 같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연 교환학생이나 해외진출 같은 경우에는 과단위로 진행된다 하기보다는 연세대학교 전체에서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또는 1년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은 연세대학교에 내고, 교육은 그 학교에서 받는 거죠. 연세대학교의 장점은 다른 주요 서울권대학교에 비해서 해외 대학과의 교류 망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는 20~30개 정도라면 연세대학교는 80~100개정도 해외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다른 대학교들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교류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기가 쉬워요. 해외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많이 연계를 하고, 국가제도와 연계를 해서 진출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리고 해외 인턴은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CNN, 즉 CNN한국지사 같은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고 미디어학부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남학생들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저희 학부 남학생들은 더 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2학년 때까지 놀다가 그 때 많이 가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고 여학생들은 동기가 군대를 가니까 친구들은 거의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많이 가요. 되게 슬픈 얘기지만 남학생들은 갈 수는 있는데 갔다 오면 너무 늦으니까 교환학생을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교환학생은 주로 여학생들 위주로 가더라고요.

Q 어떤 적성이나 흥미가 있다면 이 학과에 적합할 것 같나요?

연 학과 안에서도 진로가 워낙 많이 나뉘고 그 진로마다 가져야 되는 적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과에 맞는 적성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내가 신문기자, 방송기자나 시사 PD가 되

나도 갈 수 있다! 입시정보를 알려줘요!

[연세대학교]

황윤기 대학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나누고 수시는 또 전형별로 나누어지잖아요. 제가 입학할 때 기준으로 보면, 내신 일반전형이 내신 1.1 등급 아래가 합격 점수였던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가 제가 입학했을 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커트라인이랑 똑같았어요. 경영, 경제, 그리고 저희 학과가 연세대 인문 사회과학에서 제일 높아요. 보통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수능 전 과목에서 1~2개 정도 틀리는 성적이에요.

임지예 제가 수시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이 있잖아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신다면 논술도 중요하지만, 우선선발 기준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게 되면 그 만큼 학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약에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신다면, 전공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왔고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권오윤 제가 수능을 본지가 오래 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인고는 자사고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부 잘 하지 않아요? 저희 미디어 학부에는 외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정시보단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정시는 일 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정시로 오고요. 저희 때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2개에 2등급 하나였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총보국장직을 맡고 있는 황윤기 선배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사이에는 비난과 협박이 난무한 디자인 실제로는 타 학교 학생들보다 우정이 깊고 교류도 많다고 한다.



재수를 했지만 결국 목표를 이룬 임지예 선배님. “제가 재수를 한 이유는 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려대 미디어 대학 학생회장 권오윤 선배님.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절실히 노력하신다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고려대라고 공부만 하는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역시 꿈과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고 싶다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드라마 PD나 예능 PD가 되고 싶다면, 타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들이 무엇을 보고 웃는지 정말 잘 알아야 하죠. 신문방송학과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사고하고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는 다양하게 가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음악이든 예술이든 운동이든 학문적인 것인가, 어떤 것 하나에 대한 흥미를 무엇을 가지고 다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끼 많은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끼가 많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되게 환경에 적을 잘 한단 얘기거든요. 사실 미디어학부가 다양한 것을 배우긴 하지만 자신이 마음먹고 한 가지 길을 택하지 않으면 너무 조금 조금씩 공부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학부예요. 이게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까지 고민해보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길이 잡혀온 친구가 오면 ‘나는 이 쪽 방향으로 꼭 가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미디어학부 내에서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확고한 친구들이 꿈을 이루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Q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연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농담이구요. 장학금 제도는 성적 장학금이랑 가계곤란 장학금이 있어요. 성적 장학금은 학점이 높으면 받고요, 가계곤란 장학금은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이 받게 되죠. 그리고 학과 단위로 하고 있는 장학금,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장학금도 있어요. 또, 동문회에서 주는 장학금, 언론사나 광고사 같은 기업에서 신문방송학과에 주는 장학금, 그리고 언론협회 같은 곳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고 장학금 제도요? 장학금 제도는 당연하다 시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받는 성적 우수 장학금은 거의 상위 10% 학생들이 받고, 나머지 장학금은 학교봉사 장학금이라고 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하던가, 사무직 일을 같이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생회장인 저도 받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형제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 주는 장학금도 있고 보통 입학할 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은 4년 동안 쭉 받더라고요. 들어올 때 잘 해야 되요.

Q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 옛날에는 하나의 영역에 전문적인 인재가 유리했다면, 지금은 한 영역에 전문적이면서 다른 분야와 융합 할 수 있는 인

재가 유리하다고 해요. 학문 간에 융합과 통섭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신문방송학은 학문의 교차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학문들을 모아놓은 학문이에요. 다양한 학문들 사이에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학문 간에 소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제 여러 영역들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신문방송학과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미디어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SNS 도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것 이지만, 벌써 점점 그 힘에 거품이 빠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제도들도 그에 맞춰 계속 변화해 가면서 신문방송학도 무엇을 중심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신문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미디어,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는 거죠.

Q 마지막으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한 마디 부탁 드릴게요.

연 누구든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꿈꾼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꿈꾼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이루기만을 바라는 막연한 믿음 또는 행운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 비겁한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확률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 또는 내 삶을 열심히 산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림픽이랑 스타크래프트 2랑 월드컵이랑 이렇게 3가지 어려운 점이 있던 해였는데요, 내년에도 아시안게임이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굉장히 힘들겠어요. 사실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더 힘들 텐데 1년 열심히 하시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많아요. 고려대 미디어학부 오시면 그런 분들이랑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절실히 노력하신다면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輔仁

늘 따스하고 정감 어린 시선 보인을 생각하면 짐작이 뛴다

교지편집부 PLAYBOIN은 한만준 선생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넘치는 사랑을 만난 기분이었다.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언제나 기다렸던 것이었고 마침내 성사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만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좀 더 부드럽고 화목하게 진행하고 일반 학생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애피소드들을 질문하기 위해, 우리는 교지편집부원들을 통한 인터뷰가 아닌, 선생님께서 작년 담임을 맡으셨던 1학년 12반의 학생들을 통한 인터뷰를 계획했다. 그 주인공은 2학년 5반의 정신적 지주 오창혁 학생과 홍석현 학생. 매우 밝은 분위기로 진행된 인터뷰 특성상 웃음소리를 초성으로 처리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현장감을 위해 최대한 실제 진술에 기깝게 정리했다. (한만준 선생님 : T, 오창혁 : O, 홍석현 : H)

글 | 서동호 (편집부장)
취재 | 오창혁 (보인 기자단 부장),
홍석현 (보인 방송반 BBS 부장)



마초의 매력 가득한 한만준 선생님



1 한만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는 항상 차가울 것만 같았던 선생님의 따뜻한 면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자칫 잘못하면 무례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 여러 질문들을 재미있게 받아주셨다.

“독서실에서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선생님의 학창 시절

T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내가 사는 동네가 좀 후진 동네였거든, 후진 동네 라서. 동네에 슈퍼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술, 담배를 팔았어요.

O H 안 돼요… 선생님… 이럴 수가

T 술 담배를 팔았어요.. 그래서 가끔 독서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이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우리는 화들짝 놀랐다. 언제나 바른 생활사 나이였을 것 같은 한만준 선생님께 이런 마초 같은 면이 있었다니… 반했다. 선생님의 수학 문제에 대한 열정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O 무슨 담배였는데요?

T 지금은 잘 안 팔지, 88라이트.

“연애하려면 따뜻한 게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대학 생활

O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교무실에 붙어 있었던, 날씬했던 사진을 봤는데 인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T 뭐, 언제?

O 교무실에 붙어 있었던 날씬했던 사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T 뭐, 너희 들어오기 전에?

O 네. 뭐 대학교 시절이나.

T 대학교 시절에, 음, 인기가 정말 없었어.

O 왜요?

T 그때는,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다녔거든. 학교 갔다가, 알바 했다가. 학교 알바 술 학교 알바 술 이걸 무한반복했거든. 별로 그렇게 모범적인 생활은 아니었지. 완전 폐인, 폐인. 왜냐면, 그때는 지쳐있던 시기였거든. 힘들었거든, 먹고 사는 게. 저기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알바 해서 등록금 벌고 생활하고 술 먹고 또 알바하고 술 먹고. 대학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다 해 봤던 것 같애. 연애 빼고.

O 연애는 안 해보고 싶으셨어요?

T 아 물론 해 보고 싶었지, 싶었는데, 이게 되게 연애하기에 인기가 없는 학생이라. 맨날 후배들 보면 술 먹자 그러지, 이건 저기 강유명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게 잘 알 수 있어. 나랑 같이 다녔거든. 맨날 후배들 보면 술 먹자 그러지, 그러다가 뭐 대학교 때 과 대표도 해 보고 동아리 회장도 해 보고 뭐 해 보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되게 인기가 없었어, 맨날 그런 일들 하고… 연애하기에 되게 안 좋은 남자였어. 연애하려면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 그런 게 있었어야하는데, 전혀 없었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만준 선생님의 마초 기질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차가

운 도시 남자적 성향. 강유명 선생님께서도 같은 차도남 기질이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O 대학교 때 동아리는 어떤 거 하셨어요?

T 그 봉사동아리를 했어요, 연합봉사 동아리인데, 용산구 후암동에 영락보린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어, 거기서 애들 가르치는 걸 한 6~7년 했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했으니까. 근데 좋았던 점은 고아원 봉사동아리에 여대생들이 엄~청 많았어. 최고였지. 아주 예쁜 애들만 모였어, 항상.

이때 이유모를 침묵이 잠시 흘렀다.

O 대학교 시절에 애듯한 로맨스 있었어요?

T 없어, 전혀 없어.

H 초등학교 시절엔요?

O 남자라도

이때 선생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H 생각하시는 거 봐.

T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게 내가 스물 여덟에 만났거든. 그때가 처음이야.

O 아 또 질문 있어요. 작년에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T 소개팅으로 만났어. 선배가 소개시켜줘 가지구, 선배랑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아근무하던 게 아니라 선배랑 같이 공부하던, 대학에서 공부하던.

O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2세 계획이 있으신지.

T 곧 만들어야지.

O 지금은 아직 없구요?

T 지금은 아직 없고, 음… 곧 만들어야지, 얼마나 만들진 모르겠지만.

“제일 좋아 여기가…”
선생님의 보인고등학교 생활

O 선생님의 보인고 생활이 궁금해서요. 보인고등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

T 음. 사실 이제 보인고가 역사가 워낙 깊긴 한데, 인문계로서의 역사는 짧은데. 음… 사실 뭐 어떤 학교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오기 전엔 잘 몰랐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전에 있었던 학교들이 워낙 힘든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지. 내가, 지금 요새 그거 뭐냐. 뭐지? 노래부르는 거. 송포유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학교 있잖아. 성지고 말고. 과기고. 옛날에 이름이 북공업고등학교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 내가. 북공업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뭐 저기 서대문에 있는 인창중학교, 그 다음에 충암고등학교, 거쳐서 여기왔는데, 제일 좋아, 여기가. 선생님들도 제일 좋고. 학생도 제일 좋고.

O 보인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한 동료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T 가장 친한 선생님? 뭐 누구를 뽑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뭐 강유명 선생님이 대학생 활내내는 아니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백병준 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부서에 있었고.

O 보인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 하기로 유명하신데 인정하십니까?

T 그건 아니지.

O 선생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계세요?

T 많지, 3학년부에 나네가 못 올라가 봐서 그렇지. 3학년부에 뭐 백종훈 선생님, 강남구 선생님, 뭐 다른 선생님들도. 내가 제일 못해.

O H ...

이 대목에서 선생님의 겸손함이 엿보였다.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항상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수업하시고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정열적인 선생님이시기 때문이다.

O 선생님께서 야자를 도망간 학생을 잡기 위해 마천동까지 직접 학생들을 마주하셨던 애듯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 것 같은데, 어垠신지.

T 껌. 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별로 사랑 안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나보다 더 애들을 더 많이 쟁기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인고 학생들이 이쁜 짓들을 많이 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정이 많이 가는 거고, 많이 쟁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잡으러 다니는 거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놀고 있으면 보나마나 이제 미래에 있어서 좀 더 힘든 결과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 지금 좀 힘든 게 낫잖아, 그래 안그래?

O 물론입니다.

“근삿값 100으로…”

선생님의 은밀한 사생활

O 선생님 사생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종종 다이어트 시도를 하셨는데, 그 성과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H : 육안으로 ㅋㅋㅋ) 성과가 있었는지요.

T 내가 이 학교를 와 가지고 다이어트 시도는 두 번인가 했는데, 한 번은 그나마 좀 성공을 했어요. 그때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때는 좀 그나마 조금 뺐는데 나머지 시도들은 다 실패했지. 오히려 더 늘었어, 여기와 가지고 엄청 늘었지.

O 실례지만 몇 톤이신지..

H ㅋㅋㅋ

T 그냥 100이라고 써, 100키로.

H 에이~

O 180으로 하겠습니다

T 100으로 하자. 근삿값 100

H (나지막이)작년에 130이었잖아요.

T 근삿값 100으로 하자.

O 선생님 작년에 야자 감독 시간에 야구 게임을 하시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야구 게임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지.

T 지금은 야구 게임을 안 해요. 지금은 안하고.

H 그럼 코미디 프로는요.

T 코미디 프로는 음…

O 놀러와, 놀러와 ㅋㅋㅋ

선생님께서는 작년 야자 감독 시간에 코미디 프로그램 〈놀러와〉를 보시며 종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품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행복한 소리에 아이들이 선생님 쪽을 바라보면 선생님께서는 마치 소년 탐정 김전일이 마지막 실마리를 잡았을 때와 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공부해라”를 외치셨다고 한다.

(이때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 울렸고, 인터뷰가 마무리됐다.)

이상 한만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는 항상 차기울 것만 같았던 선생님의 따뜻한 면을 만나볼 수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무례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 여러 질문들을 재미있게 받아주시고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잊지 않으셨던 한만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번 인터뷰를 아주 부드럽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고 여러 일화들을 소개해 준 2학년 5반 오창혁 학생과 홍석현 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웃빛깔 한만준 선생님 2세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요~ .輔仁



2

3



2 오창혁 학생

3 홍석현 학생

4 한만준 선생님과 사모님 시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원전 잘 나온 예식장 사진을 보내주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먼저 다가서는 푸근한 선생님 될 터 자기 색깔 드러내는 적극적인 학생 좋아

새로 부임하신 국어과 나지윤 선생님

이번에 교지 편집부는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중 내가 인터뷰하게 된 선생님은 바로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나지윤 선생님이셨다. 타고난 외모 덕에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을 인터뷰하게 돼서 긴장되고 설레였다. 태어나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인터뷰한 적은 바로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라 종간에 실수도 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이 글이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취재 | 박한재, 이지석 · 편집 | 이지석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나지윤 선생님, 이에 대해 겉모습이 아니라 수업 내용이나 교사의 입장에서 인기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 고밝혔다.

Q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자기소개요? 나이도 말해야 되나?(웃음) 네 저는 나지윤이고요, 보인고 1학년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곧 서른을 앞두고 있고요.

Q 선생님께선 왜 보인고에 오셨나요?

A 제가 체격이 왜소해서 과연 학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보인고가 남고이다 보니까 더욱 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인고에서 이런 벽들을 부수고자 해서 오게 된 것 같네요.

Q 그런데 왜 굳이 남고에 오셨나요? 그리고 혹시 남고라서 힘들었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A 음 제가 지금까지 일해 왔던 곳이 여고 아니면 공학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벽을 부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남학생이라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남학생만 있다 보니까 말하는 거랑 옷을 입는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죠.

Q 그렇다면 이런 학생이 좋다? 싫다?

A 선생님이 싫은 건 모르겠는데 좋은 건 있어요. 되게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사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보인고에 와서 후회는 없나요?

A 네, 후회는 없어요.

Q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갈게요. 도대체 선생님의 큰 목소리의 비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목소리? 선생님이 목청도 조금 크지만 일단 남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체격이 왜소하다보니까 목소리라도 크게 내는 것 같아요.

Q 이건 좀 주관적인데 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순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솔직히 말해도 되요? 선생님은 솔직히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아요.(웃음)

Q 하하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인기가 많으면 저야 좋죠!

Q 그렇다면 인기비결은 뭐라 생각하세요?

A 외모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조금 싫은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겉모습이라면 제가 교사 입장에선 되게 쓸쓸하게거든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제 수업이나 교사의 입장에서 인기가 많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Q 혹시 취미가 무엇인가요?

A 아 취미요? 선생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중가요는 거의 안 듣고요, 그러니까 인디밴드 음악이나 외국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 되게 많이 가고요. 주말에도 주로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락 페스티벌에 가서 재밌게 즐기게 오는 편입니다.

Q 학교에 안 나오실 때 주로 뭐하고 지내세요? 락 페스티벌에 가시나요?

A 락 페스티벌은 뭐 열리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음악 콘서트 같은 거, 주기적으로 열리는 콘서트 같은 데도 많이 갔고 음악을 집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아니면 영화 보는 것을 좋아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영화보고 그러죠.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Q 그렇다면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나 평상시에 받는 스트레스와 해소법은?

A 평상시에 받는 스트레스? 선생님이 먹는 걸 되게 좋아 하거든요. 교무실에서도 끊임없이 먹어서 다른 선생님들을 되게 놀라키는데 선생님이 되게 단 거, 단 거를 천천히 많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시끄러운 음악을 집에 갈 때 크게 듣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선생님의 자식과도 비슷한 존재예요. 이렇게 강아지랑 노는 거?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Q 그럼 그 스트레스는 무엇에서 나오나요?

A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수업의 준비라는 건 자습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줄줄이 읽는다고 해서 수업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없던 거에서 있는 거로 창조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스고, 그 외의 다른 스트레스는 별로 없죠.

Q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매우 궁금한데요. 뭐 별명이나 성격, 성적 이런 것들?

A 뭐 특별한 별명은 없었고요. 선생님이 여

고를 나왔거든요, 여학생들끼리 별명 붙이고 노는 건 많지 않은데 일단 성격부터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로 4등급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고, 못했고,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대학을 갔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실 정도로 3학년 1년 새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유달리 열심히 듣거나 내신을 굉장히 잘 받는 유망한 학생이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공부를 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딱 세워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Q 선생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A 가장 먼저 보는 건 외적인 걸로는 외모를 보고요. 선생님은 아주 잘생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장동건, 뭐 원빈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고요, 공부를 잘하게 생긴 안경 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보는 게 목소리. 중저음의 목소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 다음엔 뭐를 보냐면, 그쵸, 공부를 잘하게 생긴 지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에 빠져서 그 분야를 줄줄 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나…

Q 그럼 자신을 어떠한 무언가에 비유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A 비유? 좀 그런 게 있어요 성깔이 있다고 해야 하나?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 안하고요 끈질기게 무언가를 하는 성격이에요. 팽팽볼 같다고 비유하고 싶은 것이 물론 좌절할 상황

이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가 많을 텐데, 선생님은 누군가가 옆에서 누른다,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면 오기로 버텨서 더 극복하고자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눌렸을 때 더 튀어 오르는 그런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비슷하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한 단어? 아 비슷하네요. 잡초! 밟아도 절대 죽지 않는 잡초.

Q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인고의 첫인상과 지금의 생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첫인상? 글쎄요 첫인상과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보인고에 처음 왔을 때 뛰든지 처음이니까, 보인고라는 남학교도 처음이니까 내가 뭔가 무너뜨려야 할 벽 같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어려운 존재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보인고라는 학교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눈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건 학생들 개인인, 그러니까 학생들 개인을 보니까 이 보인고 학생들은 착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뭐… 아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지지고 볶고 하지만 애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착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인고 학생이라면 정말 순하고 아이들이 다 착하고 둥글둥글하고 따듯하고 온실 속에서 키운 아이들처럼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은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잘 어울리지면 좋겠다. 내가 정말 잘 지내서 언제까지고 사제지간으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드는 것 같네요.

Q 그러면 언제까지 보인고에서 학생들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무섭고 좀 그렇지만 실제로 대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좀 마음을 넓히고 좀 그렇게 다가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해의 목표에요.

가르치실 건가요?

A 학교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요.

Q 보인고에게, 보인고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보인고에 바라는 점은 없고요, 학생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박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너무 얌전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가 얌전하지? 하겠지만 선생님이 딱 봤을 때는 조금 무기력하고 학교에 갇혀서 너무 그 나이 때 부릴 수 있는 폐기나 열정 같은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좀 많이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주눅 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눅 든 모습을 보게 되면, 착한데 주눅 든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학생들이 발랄하고 조금 더 밝게 있으면 이 시절이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라는 거예요.

Q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3년 나지윤의 각오는 무엇일까요?

A 하하(웃음) 나지윤의 각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강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조금 더 단단해지자, 서른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단단하고 성숙해지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잡초이고 탱탱볼이지만 선생님도 상처라는 것을 받거든요.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언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 마음을 열고 푸

근한 선생님이 되어보고 싶다. 아직 한참 부족해요. 푸근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싶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갈 즈음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무섭고 좀 그렇지만 실제로 대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좀 마음을 넓히고 좀 그렇게 다가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해의 단기적인 목표에요.

Q 그렇다면 장기적인 목표도 있나요?

A 장기적인 목표라 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학생들이 수업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타 다른 인간적인 자질이나 선생님의 외적인 그런 것이나 그런 것들로 얻은 인기도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교사니까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고 들을 때는 재미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남는 것이 있고 그 수업을 들음으로써 내가 뭔가 맍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걸로 매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나의 장기적인 목표는 정말 열정을 잃지 않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게 단련하는 것? 그게 나의 장기적인 목표죠. 이제 끝 인가요? 수고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지윤 선생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시며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셨다. 또한 우리를 걱정하시고 생각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차갑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실 것이다. 맷으며 나는 이 글이 학생들은 나지윤 선생님을, 선생님께선 학생들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잘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輔仁

실패란 '안된다가 아니라 안하는 것' 주위에 '에너지' 발산하는 학생 되길 기대

아침 등교 시간만 되면 “인사하자~”, “네,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의 참맛을 알려주신 그 선생님! 이름 석 자로 우리를 “뭐? 저 선생님 성함이 이귀염이야? 우와 이름 특이하다”라고 놀라게 한 그 선생님! 어떤 분인지 많이 궁금하셨을것이라 생각한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지편집부 PLAYBOIN에서 직접 이귀염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다. (P : PLAYBOIN, L : 이귀염 선생님)

글 | 흥윤기 · 취재 | 박한재



새로 부임하신 영어과 이귀염 선생님

P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BOIN입니다. 선생님 인터뷰가 교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찌하세요?

L 일단 뭐,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고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도록 할게.

P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 어, 선생님은 일단 나이는 36이고 그리고 이름은 모두 알다시피 이귀염이야. 음, 남동생 하나 있고 결혼은 2년 전에 했고 아직은 주니어가 없는 상태야. 지금 열심히 노력중이지 하하. 선생님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로 가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은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나왔고 학번은 97학번이야. 지금은 송파구에 살고 있고 올해(2013) 보인고등학교에 처음 왔어. 선생님 교직경력은 올해로 8년 됐어.

P 아 선생님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해요. 혹시 뉴질랜드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L 어, 선생님 이름을 영어로 그냥 읽으면 뭐 ‘큐티 리’ 이런 거 아니냐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영어로 하면 귀염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구이염으로 발음돼서 좀 많이 어려워. 뉴질랜드에 계시는 목사님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월리엄이라고 지어주셔서 영어 이

름은 월리엄 리야. 외국 친구들은 줄여서 월리라고도 불러.

P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신 건가요? 그리고 간단하게 살던 얘기 좀 해주세요.

L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온 건 1998년도야. 음, 어렸을 때 외국으로 간 거라 많이 힘들었지. 친구도 없고 영어도 지금과는 다르게 교육을 잘 안하던 때라 “I am a boy” 이런 말밖에 모르던 상태였어. 말도 안통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지. 선생님이 처음에 거기 갈 때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귀염이는 내성적이어서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 뉴질랜드에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자극을 받고 이를 악물고 부모님과 떨어져 외국인과 험스테이까지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 대화가 안 되니까 사전을 옆에 항상 끼고

다녔던 거 같아. 처음에는 단어로만 얘기했지. 뭐 먹고 싶을 때도 ‘헝그리’ 이런식으로 만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웬만한 대화정도는 가능했지. 담임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한테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줬던 것 같아.

P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L 사실 요즘 좀 그래.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날씨. (인터뷰 당시 8월초) 날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즘 한국 날씨가 무슨 동남아 날씨처럼 굉장히 습하고 짜증나는 날씨잖아? 뉴질랜드도 더운 나라긴 하지만 이렇게 습하거나 하지는 않아. 선생님은 도저히 이런 날씨를 못 견디겠어. 생활면에 있어서 가아니라 날씨 때문에 뉴질랜드 생각이 종종 나온해.

P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L 선생님 취미는 운동이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운동을 적극 권유하셨기 때문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야.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신경이 남보다는 좋은 것 같아. 모든 운동이던 남들하고 같이 경기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아. 그니까 취미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P ‘이귀염’이라는 성함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한자뜻 같은거요~)

L 어, 아버님께서 ‘귀엽게 자라라’ 뭐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다고 해. 남동생 이름하고 연관 지을 수 있겠다! 남동생 이름은 이바름이야. 바르게 살라고 주셨대. 귀엽바름 형제지.

P 지금은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L 대학교 때 수업 출석을 하는데, 선생님 이름이 여자이름 같잖아? 교수님이 여자동기들

대리출석 해준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증까지 보여드린 적도 있어. 근데 뭐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억되기도 쉽고 잘 잊히지도 않고 그래서 만족하는 편이야.

P 보인고에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또 첫인상은 어땠어요?

L 학교에 선생님 대학 선후배들도 몇 분 계셔서 학교 분위기 좋다는 소리도 자주 들었었고 또 선생님 집이 송파구 가락동이어서 가깝기도 하고. 그런 보인고에서 영어교사를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오게 되었어.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 여고에 있다가 남고에 와서 남학생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모두들 운동도 좋아해서 선생님이랑 잘 맞는 거 같고 또 성격도 굉장히 밝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지.

P 선생님 지금 딱 한 학기가 끝난 시점인데, 지금의 보인고는 어떠신 것 같아요?

L 음,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한해서 겠지만 보인고의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도 선생님을 찾아올 것 같아. 선생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학교야. 학생과 선생님 간에 정이 있다고나 할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좋아.

P 보인고에 오셔서 힘들거나 곤란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L 선생님이 1교무실에 있는데 선생님 또래 선생님들은 다 2교무실에 계셔서… 같은 연배의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다보니까 많이 낯설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숙연하고 그래서 처음엔 약간 힘들었어. 지금은 적응해서 나름대로 자기 공부하거나 일하기에 좋아. 가끔씩 심심하면 2교무실에 놀러가기도 해.

P 전에 계시던 학교가 여고잖아요? 남고에 오셔서 후회하시는 건 없나요?

L 여고에 있을 때는 편지도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선생님을 좋아해주는 여학생이 많아서 좋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처음에만 좋지 나중 가니까 무뎌져가더라고. 후회하는 건 없어. 오히려 남고 오니까 남학생들하고 만 할 수 있는 교감 같은 것도 있어서 좋아. 여학생들한테는 못했던 얘기도 남학생들한테는 할 수 있고 말이야. 여고가 10중에 7이라면 남고는 10이야. 남고가 선생님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아.

P 보인고의 강제야자와 두발규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L 야자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강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먼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 할 것 같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에 임한다면 절대 강제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거야. 야자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교 일찍 끝나면 좋지~.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감독하시는 거지. 강제라는 말을 붙인다면 선생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선생님 감독아래 하는 이런 자기주도학습이 습관화가 되면 남들과 공부의 정도의 차이도 확실히 나고 미래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날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두발은 이정도면 충분히 고등학교에 딱 알맞다고 생각해. 전에 있던 여고에서는 양말하고 머리끈까지 규제 했었는걸? 우리 학교 정도면 딱 괜찮지. 삭발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P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어떠한가요? 당근 or 채찍?

L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굳이 말하자면 당근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

라서 채찍도 쓰고 있어. 선생님을 이해하고 잘 따라주는 학생들만 있다면 당근만으로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채찍도 필요하다고 봐.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안된다가 아니라 안하는 거다”야.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느냐의 차이지 원래 안 되는 건 없어, 절대로.

P 교사 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L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들, 지각하는 학생들을 볼 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1~3년 뒤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인데, 참 안타깝지. 지금의 모습이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이거든.

P 그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법이 있다면요?

L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풀어. 선생님이 또 술은 안 마셔 하하.

P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L 졸업한 학생이 잘 되어서 찾아왔을 때, 결혼할 때, “선생님 저 성적 이만큼 올랐어요~.” 이럴 때? 어떤 2학년 학생이 그러더라. 자기는 1학기 중간 때 50점대가 나왔는데 기말 때는 60점으로 올랐대. 솔직히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많이 칭찬해줬어. 왜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거거든. 그런 학생들은 볼 때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껴.

P 만약 지금 영어교사가 아니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L 음, 운동선수? 하고 싶었던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곤잘하곤 했으니까 운동선수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네.

P 이런 학생이 좋다/싫다. 알려주세요!

L 선생님은 밝은 학생이 좋아.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에너지를 주는 학생들 있

지? 그런 학생들이 정말 좋아. 공부를 못하더라고 밝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꼭 인정을 받더라고. 싫은 학생은 의지박약형 학생이야. 자포자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워. 마음이 반이야. 결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솔직히 좀 싫어.

P 선생님이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L 선생님 어머님의 꿈이 교사셨어. 어렸을 때부터 교사의 꿈이나 열정,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

P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보인고나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L 일단 보인고에 다니거나 앞으로 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해.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항상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처해있고, 더 안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학교생활을 좀 더 밝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하고 몸 부딪혀가면서 운동도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도 해보고. 이런 서로간의 배려가 있는 밝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P 마지막 질문이에요. ‘영어교사 이귀염’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L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거야.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 이게 목표야. 의지가 약하거나 안하려는 학생들을 끌어 올리는 거지. 조금이라도 가능



‘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거야.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 이게 목표야. 의지가 약하거나 안하려는 학생들을 끌어 올리는 거지.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상담을 몇 번이라도 해서 일깨워 주고 싶어.’

성을 보인다면 상담을 몇 번이라도 해서 일깨워주고 싶어.



교지편집부 PLAYBOIN에서 만나 뵙고 온 이귀염 선생님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셨다. 외모도 연예인처럼 잘생기신 우리 이귀염 선생님. 여러분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귀염 선생님에 대해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인터뷰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귀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냉철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 공존 학생들 꿈 실현하는 조언자 역할 담당

처음 본 순간부터 음? 뭐지 엄청 짚고 어려보이는 선생님이시네? 라고 느껴지는 선생님. 무언가 순박해 보이시고 많이. 아주 많이 착해 보이시는 이영인 선생님을 우리 PLAYBOIN이 만나 보았다. (P: PLAYBOIN L: 이영인 선생님)

취재·글 | 민정원, 박한재



새로 부임하신 수학과 이영인 선생님



P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인고 교지편집부 PLAYBOIN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 안녕, 선생님 이름은 이영인이고 선생님은 올해 6년째 교사를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수학 사범대를 졸업해서 바로 고등학교만 6년째 하고 있고,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4년 째 1학년만 맡고 있는 선생님이지.

P 보인고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L 보인고는 이미 송파고등학교에서 나름 자사고로서 이름을 몇 번 들어봤고, 아이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내가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보인고에 오게 되었지.

P 담임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아이들을 이끄시는지?

L 나의 담임 스타일은~ 학교에 오면 힘들잖아? 또 우리는 야자도 열시까지 하고 힘든 가운데 선생님이 계속 강압적으로 잔소리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더 재미있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P 그럼 담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일은?

L 담임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려보니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잡고 혼낼 때 마음이 좀 아프지.

P 그럼 수학선생님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L 수학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교사가 꿈이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이과 성향인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 수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었어. 수학이 재미있다보니 문제를 풀면 다 맞고 내가 잘하다 보니 더 좋아지게 된 거지 그러나 보니 수학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수학선생님이 된 거지.

P 수업하실 때 사투리를 자주 쓰시던데 고향이 어디세요?

L 선생님 고향은 울산이야 공업도시에서 태어났고 초, 중, 고 전부 다 울산에서 다녔고 대학교만 서울에 올라와서 다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에서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사투리는 자연스럽게 쓰고 여기 와서 보니 나만 경상도 쪽이 아니라 이윤호 선생님도 경상도 쪽이시라 확실하게 사투리를 쓰고 계셔서 나

도 맘놓고 쓰는 거지.

P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L 음 선생님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200일 넘은 딸이 있어.

P 하하 그럼 선생님 안 하셨으면 무슨 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L 내가 선생님 안 했으면 그냥 뭐 이과 쪽으로 갔겠지 선생님이 대학을 갈 때 사범대만 쓴 것만이 아니고 공대도 써 가지고 아마 뭐~ 회사 다니고 있지 않을까?

P 그럼 학창시절에 별명 있으셨죠? 별명이 뭐예요?

L: 쌤이 어릴 때는 좀 까무잡잡해서 뭐 연탄?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 이후에는 별명이 딱히 없었던 거 같아.

P 학창시절 성적은 어떠셨어요? 질하셨을 것 같으신데.

L 음 쌤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좀 잘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너무나도 이과적인 성향이 강해서 수학은 잘했는데 국어는 좀 못했던 걸로 기억해.

P 학창시절 남고라고 들었는데요. 가장 재미있던 에피소드는?

L 선생님은 남중남고 출신인데 특히 남고

에서 기억이 났던 것은 선생님 고등학교에 여자선생님이 안 계셔서 학교에 여자라곤 매점 할머니? 그래서 자습시간에 속옷만 입기도 하고 좀 편하게 지냈지 하하.

P 아하 그렇군요, 남중남고를 다니셨으면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창시절 연애는?

L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도 나름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교여서 아이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내 관심사도 그쪽엔 많이

없어서 그냥 고등학교 팬 여자에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

P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머리에서 항상 윤기가 나시는데 뭘 바르시는지?

L 아이들한테는 안 감아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사실 아침에 뭘 바르긴 하지, 바르는 이유는 대학교 때부터 발랐는데, 나름 좀 동안이라 안 바르면 고등학생인줄 알아서 그래서 좀 들어보이려고 바르는 거지.

P 하하 좀 짚어 보이길 하세요, 그럼 지금 머리 스타일은 언제부터?

L 거의 대학교 와서부터 짚은 머리를 좋아해서 계속 짚은 머리를 추구하고 있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P 새로운 학교에 오셨잖아요? 제일 힘드셨던 점?

L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보인고에 대한 설정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색하고 서툴렀던 거? 그런 게 좀 힘들었지.

P 보인고에 바라는 점 학교 또는 학생들에게요~

L 학교 쪽 보다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 우리 보인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점을 알아주고 능력도 있으시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

P 혹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 이었다면 어떤 과목이셨을지.

L 아마도 나는 화학이나 생물 쪽? 아마 했다면 이 두 과목이었을 것 같아.

P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는?

L 처음 보인고에 왔는데 1학기가 지나서 나름 보인고의 설정에 대해 좀 알았고 그리고 1



처음 보인고에 왔는데 1학기가 지나서 나름 보인고의 설정에 대해 좀 알았고 그리고 1학기 땐 아이들도 학교를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2학기 땐 더 탄탄하게 해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도와주고 싶고 2학기 때는 1학기 때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을 다 해보고 싶어.

학기 땐 아이들도 학교를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2학기 땐 더 탄탄하게 해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도와주고 싶고 2학기 때는 1학기 때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을 다 해보고 싶어.

PLAYBOIN에서 만나본 이영인 선생님을 취재하면서 참 수줍으시면서 역시 착하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엄청 짚어 보이시는데 따님도 있으시다고 해서 좀 놀랐다. 그리고 이영인 선생님께서는 풀어줄 땐 풀어주시고 잡을 땐 잡으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다. ■

농민들 수고와 수확의 기쁨 함께 느낀 소중한 체험

올해 보인고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빅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번째로 2013년 10월 19일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를 찾아 농촌체험을 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학생들과 함께 농촌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고구마를 캐고, 일손을 돋는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탑곡리 아성기(55세) 이장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 한성우 선생님

농촌체험 탑곡리 이성기 이장님



한성우(이하 한) 안녕하세요. 보인고 교지 담당교사 한성우입니다. 이장님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장님(이하 이) 저는 탑곡리에서 태어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탑곡리 이장을 10년 째 맡아 하고 있습니다.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복합영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이 복합영농이란 벼농사, 밭농사, 한우 사육, 표고버섯 키우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일을 맡아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인고 학생들이 체험을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자주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탑곡리에 대한 소개와 사랑을 해주세요.

이 마을 이름은 옛날에 텁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탑곡리라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요. '택리지'에 유구천 주변으로 피난을 오면 화를 피할 수 있다고 기록될 정도로, 6·25 때는 피난지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탑곡리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물 맑고, 화합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가구 수는 75가구 정도이고, 인구는 180~200 명으로 유구읍에서 중간 크기의 마을입니다.

한 이장님의 생각하시는 농촌 생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 농촌은 우선 인심이 좋고, 구성원 간의 학합이 잘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며, 빼어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른 농촌들도 좋겠지만, 이곳은 특별히 좋습니다.

한 그러면 농촌 생활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요?

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농촌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금전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요즘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지는 않죠.

한 농촌도 많이 어렵군요. 탑곡리의 자랑할



만한 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표고버섯, 밤, 감자, 고구마, 포도, 꿀 등 다양한 농산물들이 다 맛있습니다.

한 탑곡리에서 수확한 농산물들은 어디로 판매되나요?

이 감자나 콩 등은 사전에 계약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고추, 고구마 등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주로 농협에 판매를 하죠. 요즘에는 보인고 선생님들과 인성 하이텍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들이 많이 주문해서 구입하시는 걸 저도 봤어요. 오늘 표고버섯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저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빅 드림 프로젝트' 덕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빅 드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보인고 이사장님이신 김석한 회장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빅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기업,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도시의 학생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기업은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농촌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인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농촌 체험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네. 저도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인고 학생들의 참여는 두 번째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특산물을 많이 주문하시는 데요,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

1 바쁜 학장생활 속에도 이렇게 농촌을 찾아준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이성기 이장님은 이번 농촌 체험을 통해 평소에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농부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2 1차 농촌체험, 탑곡리 유구천 환경정화
3 1차 농촌체험 옥수수 따기 활동
4 고구마 캐는 학생들

각하시나요?

이 일단은 보인고 학생들이 찾아와 준 것이 좋고, 앞으로도 더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 판매하는 물건들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그럼 어떻게 하면 '빅 드림 프로젝트'가 활성화될까요?

이 우리는 농약을 안치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텁곡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좋겠어요. 체험한 학생들도 여기서 먹어보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맛있으니까 자꾸 찾을 거예요. 학생들이 아까 점심을 먹을 때, 학교급식보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한 네. 맛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아주머니들도 좋아했어요. 학생들, 선생님들이 주변에 홍보해서 텁곡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했으면 해요. 그거 이상 바라는 것은 없죠. 실질적으로 여기 텁곡리에서 나오는 것은 가락시

장에서 파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금방 나오는 거고, 가락은 서울에서 묵은 거고. 금방 딴 거라 맛있고 싱싱해요. 홍보 많이 해주세요.

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께서도 보인고 학생들은 몇 번 보셨는데요, 보인고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이 제가 보기엔 보인고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참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보인고 학생들을 칭찬해요. 시청에 가든 다

른 동네에 가든.

한 저희 학생들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인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우선 오늘 텁곡리에 온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며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오늘 농촌 체험을 통해 평소에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농부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텁곡리에 와서 수학의 기쁨을 느껴 보았으면 좋겠고, 농민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辅仁

내집처럼 학교를 아끼는 '깨끗한 마음, 반짝반짝'

누군가가 우리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그리 유쾌한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꼼짝하다.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공간인 화장실을 항상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 가끔씩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우리에게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시는 이순재 아주머니이다. PLAYBOIN의 용기 덕분에 어렵게 인터뷰를 따냈다. 지금부터 그분의 구수한 입담을 들어보자.

글 | 장준영



1 보인고 학생들을 항상 걱정하고 생각해주시는 인자한 아주머니였다.
2 마치 박자성의 발처럼 그동안의 고생을 보여주는 손이었다.

**보인고의
숨은 공신
이순재
아주머니**

것 같아.

Q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세요?

A 지금은 졸업했지만 대충 3년 전에 한 3학년생이 있었는데 정신은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착했어. 항상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청소할 때는 같이 청소를 도와주고 수고하신다고, 청소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도 많이 해줬어.

Q 혹시 학생들한테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A 보인고 학생들은 청소도 도와주고 다 참작한 것 같아. 선생님들도 괜찮고. 그런데 아주 가끔 일부 학생들이 휴지에 물을 묻혀서 화장실 천장에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떼기가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 그런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고 쓰레기들도 무심결에 바닥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 줬으면 좋겠어.

항상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구수한 입담 때문에 무서우신 분이신줄 알았는데 인터뷰 해보니까 항상 학생들을 걱정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착한 분이셨다. 우리 모두 부탁하셨던 대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천장에 장난치지 말고,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거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 辅仁

Q 그러면 취미생활 있으세요?
A 고등학교 3학년이 다른 학년들과 달리 토요일에도 등교를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서 청소하고 이후 주말에는 시간이 비게 되는데 특별히 취미생활은 없고 가끔 등산을 해.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안 가 본 산이 없는

Cafeteria

우리 매점이 달라졌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원래 매점이 있던 곳에는 다른 시설물이 한창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는 그냥 무슨 일인지? 하고 지나갔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보니 원래 계시던, 우리와 허물없이 지냈던(초코, 메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그립다), BMW를 모시던 아저씨와는 사뭇 다른 여자분이 매점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보인고의 일대 혁명이라 할 수 있었다. 뭐든지 물건을 새로 사면 탐구해봐야 하는 법이다. 새로 산 물건도 탐구해 보는데, 새 매점을 탐구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점 누나와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PLAYBOIN = P, 매점 누나 = C)

글·취재 | 서동호, 설승필, 민정원

보인고 매점의 혁명, 매점 누나



P 그럼 어떻게 매점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보인고 매점으로?

C 음. 그건, 일단은 누나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이랑 또 바로 취직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언어치료만 해서 되게 세상사는 법도 모르고 막 서비스직도 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매점을 하면 일단 망하지 않을 거 같아서. 하하

P 그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대 나오셨다는데 정말 서울대 나오셨나요? 하하하

C 아니, 누나는 연세대 언어병리학과 갔어. (의대예요?) 응. 의대 (우와 대단하다!!)

P 매점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C 언어치료사~

P 아, 그래서 맨날 뭐 사먹을 때 '맛있게 먹어~' 를 맛깔나게 잘 하시는구나. 언어치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C 응~ 누나는 서울대병원 언어치료실에 있었고, 그리고 언어나 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평가했어. 예를 들면 말의 발달이 늦거나 자폐증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신경손상, 내출혈이나 교통사고가 나도 대뇌의 문제가 있으면 언어의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 환자들을 평가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했어.

P 그럼 이 매점에 세 분이 계신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C 음. 여기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시어머니의 아는 분이고 그리고 중학교에 한분 더 계시잖아? 그분은 채용공고 보시고 지원하신 거야.

P 매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뭐예요?

C 요즘은 빵보다는 더우니까 아무래도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제일 많이 사가는 것 같아.

P 그럼 겨울에는 잘 팔리는 게 뭐예요?

C 겨울에는 아무래도 빵이랑 과자!!

P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먹을거리) 가져오시잖아요? 어떻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C 학교에 납품하는 전문 유통회사들이 있어.

P 그 카네이션 누나 있었잖아요. 그 누나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C 아 그 누나는~, 애들이 그 누나 궁금하다! 하하, 그때 그 누나는 플로리스트야. 근데 얼마 전에 개업을 했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꽃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별로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경험삼아서 와서 팔아 보라고 한 거야. 친한 동생이야~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날 잠깐씩 올 것 같아.



1 연세대 언어병리학과를 나와 서울대병원 언어치료실에서 근무했던 ○○○ 매점 누나, 그러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던 차에 우리 학교 매점 경영을 선택했다고 한다.

2 매점 인터뷰 중간에 주신 피크닉~~ 감사히 먹었습니다.

C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애들이 또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다, 이렇게 해 버리면 힘들 것 같아. 워낙 제품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다 수용해주기는 힘들 것 같아. 한 번 생각은 해 볼게!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P 매점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C 재밌는 거?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도 정이 가는 애들이 많았어. 예를 들면 보람을 느꼈던 거지. 뭐 누나 먹으라고 갖다 주거나 아니면 천 원짜리 하트로 접어서 갖다 주거나 그러면 되게 귀엽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 에피소드는 저기 원래 의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거든? 어떤 애가 앓았는데 부서졌어. 그리고 애들이 의사 앓을 때마다 되게 전화기에 머리통 부딪힐 때 마음이 아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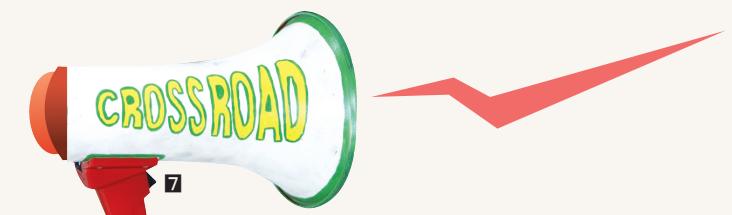
P 그럼 저희가 수업시간이나 야자시간에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세요?

C 음. 그럴 때는 청소! 분리수거! 물건정리! 그리고 재고 파악해서 주문하는 거!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고.

이로써 우리는 매점 인터뷰를 종료했다. 인터뷰를 종료한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아! 나이와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질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점을 다시 찾았지만 매점 누나는 없었다. 매점 아주머니께서 매점을 홀로 지키고 계실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었다. 궁금해 하는 보인인들을 위해 아주머니께 질문한 결과, 매점 누나는 20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네 살이라 한다. 辅仁

뜨거운 열정으로 친구와 소통하며 학교 스트레스 확~

- 1 저음의 매력, 베이시스트
- 2 밴드 음악의 든든한 지원자, 신디
- 3 남자의 박력을 보여주는 멋진 드럼
- 4 인터뷰 중인 2학년 선배의 모습
- 5 크로스로드의 1학년 보컬
- 6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일렉 기타
- 7 공연 때 쓰는 크로스로드만의 특별한 확성기
- 8 크로스로드 1학년 & 2학년 & 이효준 선생님



밴드부 CROSSROAD를 파헤치다

교지편집부 PLAY BOIN의 뒤를 이어 보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밴드부 크로스로드! 자타공인 크로스로드이지만 조사결과 크로스로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연습실은 어디인지, 동아리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 크로스로드에 대해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제부터 크로스로드란 동아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자.(P : Play Boin , C : Crossroad)

글 · 취재 | 흥윤기

P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 Boin입니다. 이번 동아리 인터뷰로 크로스로드를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어떤세요?

C 제가 보인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보인고등학교 교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보니까 보인고라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면도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바꿔준 보인고 교지에 저희가 나오다니 참 기쁘네요.

P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동아리, 부원, 담당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C 우선 저희는 1학년 7명, 2학년 3명, 3학년 6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로스로드라는 큰 밴드 아래 3개의 학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3학년은 입시준비를 하느라 공식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아요. 저희 담당 선생님은 보인고등학교 최고 미녀 음악교사 이효준 선생님이에요.(일동 웃음) 저희가 활동하는 공연, 대회 등은 모두 '효' 쌤이 기회

를 잡아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P 크로스로드는 교차로라는 뜻인데 동아리 이름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요?

C 사실 저도 처음 크로스로드에 들어왔을 때 동아리 이름에 대해 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1기 선배님들이 대회를 신청하시다가 밴드의 이름을 적는 칸에 적을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는 밴드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하던 중에 노래 제목이기도 한 크로스로드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P 공연할 때 1학년 부, 2학년 부 따로 공연하고 활동하는 건가요?

C 우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해요. 공연과 대회 참가죠. 1학년 때는 보통 공연 위주로 다니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고 2학년에 올라가서는 공연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대회를 나가죠. 또 공연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회는 보통 따로 출전해요.

밴드부실 안은 너무나도 더웠다. 문을 열자마자 멤버들의 열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해졌다. 이것도 다 크로스로드의 화기애애한 때문일까, 멤버들은 서로 너무 친했고 훈훈(?)하기까지 했다.

P 아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C 어, 저희 크로스로드 같은 경우는 공연과 대회 같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활동을 할 때마다 거의 회식을 하거나 뭘 먹으려 가요. 또 좋은 점은... 음 이거 비밀인데 보인고가 최강 야자 학교인 건 아시죠? 공연과 대회의 한 주 전쯤에는 담임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습이라는 명분 하에 야자를 뺄 수 있어요(하하하). 정말 최고죠? 아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효준 쌤을 맨날 볼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P 그렇군요~ 너무 부러워요. 그럼 우리 동아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C 저희 동아리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요. 다른 동아리 보면 선배란 호칭을 사용하죠? 물론 지금은 교지 인터뷰에서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형이라고 부르고 많이 놀리기도 해요. 이렇게 선후배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요. 또 크로스로드는 그 뜻끼로 유명해요. 아마 저희가 동아리 시간 때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충격 받으실 거에요.

P 보인의 자랑 크로스로드! 송파 셈머 유스 페스티벌 최우수상을 받는 등 화려한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후배인 1학년 부원들로서 동아리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C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동아리는 많은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저희 선배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루신 업적 이잖아요? 또 그런 업적 덕에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라기에 선배들이 만드신 크로스로드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즐겁고 재밌게 연주하려고 해요.

P 8월 30일 보인 천년제와 연말콘서트, 각 오한마디 부탁드려요.

C 축제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 아니 밴드죠? 그런 만큼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미친 것처럼 연주하고 내려올 게요. 꼭 관객들을 흥분시키겠습니다!

크로스로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아리에 대한 그들의 엄청난 열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음악에 대한 열정, 멤버간의 친밀함, 훌륭하신 선생님. 모든 구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멋드려진 공연을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 글을 읽어본 학생이라면 크로스로드라는 동아리에 무한한 매력을 느끼리라 나는 생각해본다. 輔仁



보인고 인성관(기숙사) 大해부

더 큰 세계와 미래를 향해… 보인 인재양성의 산실

보인고등학교 인성관(기숙사). 들어가 본 학생도 적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이 마성의 공간을 교지편집부 PLAYBOIN이 탐방해 보았다. 필자는 1학년 때 6개월 정도 기숙사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이때 친해진 기숙사생들과, 신임 사감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인성관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글·사진 | 편집부장 서동호

보인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서서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 나오는 이곳, 기숙사는 다양한 보인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곳의 1층은 축구부의 식당과 매점으로 쓰이고 있다. 2층은 고등학교 축구부, 3층은 중학교 축구부의 숙소로, 4층은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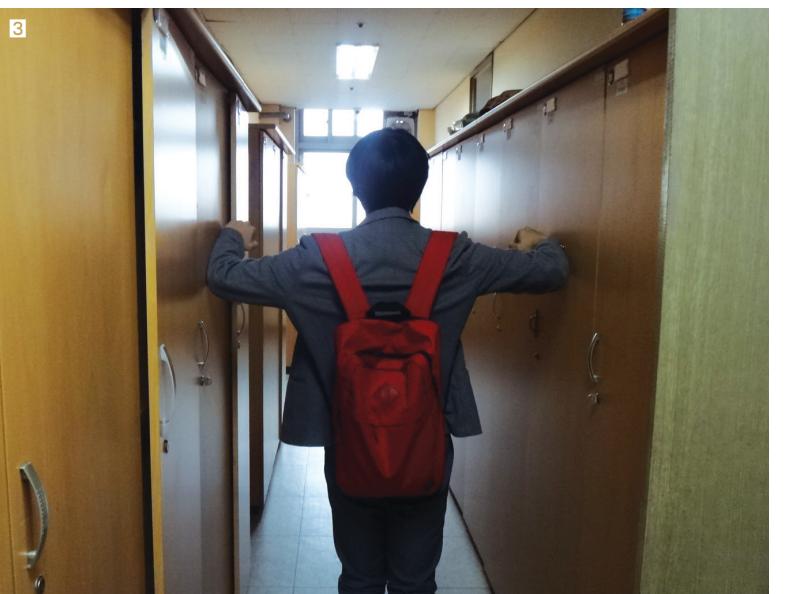
과거 보인고의 기숙사는 전 층을 축구부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4층을 비우고 인문계 학생을 받음으로써 통학거리, 집안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축구부가 2층을 썼고, 3층과 4층은 일반 학생들이 썼으나, 2013년 들어 4층만 일반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게 되었다. 1학년과 2학년, 3학년이 모두 한 층을 쓴다. 더불어 2012년까지는 6인 1실이었으나, 2013년부터 8인 1실로 바뀌었다. 새로운 사감 선생님도 오셨다.

기숙사 토박이(?) 이주원 군이 말하는 기숙사 생활

안녕, 나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2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해. 내 기숙사 일과를 말해줄게! 일단 여섯시 반에 칼같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다시 일곱 시 십 분까지 옷을 입고 준비를 하다가 일곱 시 십 분에 아침을 먹고 열 시까지 야자를 하고 다시 두 시간 공부를 하고 씻고 자는 거야. 쉴 때는 노트북도 많이 보고 평소 할 짓이 없을 때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하지. 주말에 있을 수도 있는데, 토요일 아침 여덟 시에 학교 차습을 하러 가서 열두 시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밖에서 있다가 한 여덟 시쯤 되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다시 놀다가 자는 거야.

기숙사에 있는 것의 장점은… 그냥 서로… 있으면 재미있어. 기타 같은 것도 칠 수 있고. 학교가 가깝다는 거. 단점은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사감 선생님의 케어가 많이 있어. 좋으신 분인데, 많이 깐깐하셔. 시간을 꼭 지켜야 돼. 1분이라도 늦으면 혼나.

컴퓨터 사용은 인터넷 강의 듣는 애들, 수행평가 있을 때 해.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프린터도 종이 항상 뺑뺑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샤워실은 밤 열두 시 전까지 사용하면 되구, 세탁실도 자유롭게.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새벽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밖에 쓸 수 없어(축구부 때문에). 아침밥은 여섯 시 오십 분부터 먹을 수 있고 중식 석식은 통학생들과 똑같이 먹고. 제일 불편한 건 내 사생활이 없다는 거. 새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친구들아! 기숙사 들어오면 형들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고, 서울대 가는 형들도 기숙사 많이 살았고. 한 네다섯 명 있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숙사 사감 이해준 선생님의 당부 말씀

안녕, 얘들아. 나는 기숙사 사감 이해준 선생님이야. 2013년 3월부터 보인고등학교 인성관 사감을 맡고 있어. 사감을 하기 전에는 국어교사로서 중학교 21년, 고등학교 10년동안 교사생활을 31년 했어. 통학생들은 나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야. 기숙사생들 외에는 사실 접할 기회도 거의 없고.

약간 아쉬운 점은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저녁 여덟 시에 출근하고 아침 여덟 시에 퇴근하는데, 밤부터 아침까지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10시까지 자율학습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12시 되면 자. 아침 6시 20분까지.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경우는 얼마 안 되지.

보람을 느낄 때는 기숙사 생활을 잘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볼 때야. 반대로 수시 지원했다가 탈락하고 정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고.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부모님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야. 새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정이 뭔지 모르고 들어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집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보인고등학교 인성관! 이곳은 학생들을 위한, 친근한 기숙사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송파의 일류 보인고등학교와 인성관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류가 될 것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인성관의 시설은 이를 위한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輔仁



- 1 보인고 인성관(기숙사) 전경
- 2 4층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신발장
- 3 문을 들어서면 복도 양쪽에 캐비닛이 보인다. 기숙사생들은 여기에 개인 용품을 넣는다.
- 4 초고속 광랜을 활용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는 기숙사생들
- 5 인성관의 대략적인 구조(그림이 빠.BackgroundImageLayout 해서 그렇지 각 호실의 크기는 똑같다.)
- 6 정수기와 전자레인지
- 7 깨끗한 화장실
- 8 9 기숙사 내부



2 0 1 3 서 울 모 터 쇼

아직 갈 길이 먼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



지난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7일까지 열흘 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모터쇼'가 개최되었다.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3 서울모터쇼는 전세계 14개국 384개 업체가 참가했고, 그 커다란 킨텍스의 1,2 전시장 모두 사용한 대한민국 모터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모터쇼였다.

글 · 취재 | 김낙천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흠모했던지라 이번 모터쇼만큼은 꼭 가고 싶었는데, 마침 김영만 선생님께서 서울모터쇼 활동프로그램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셨다. 선착순 신청 마감이 라고 하기에 방과 후에 바로 신청했고, 친구와 아는 형과 함께 모터쇼에 다녀왔다.

긴 줄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개장시간에 맞춰 벽찬 가슴으로 킨텍스 입장. 과연 역대 최대 모터쇼답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 입장하면서 받은 전시안내장을 보고 '이 많은 걸 오늘 전부 관람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적어도 입장 2분 32초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막상 입장해보니 '모터쇼'라는 이름보다 '모델쇼'가 어울릴 정도로 자동차보다 모델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서울 모터쇼 주최 측은 이번 서울 모터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모터쇼가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해 왔다. 인정한다. 이번 2013 서울 모터쇼는 전 세계 두 손가락 안에 드는 모델쇼였다.

아홉 대의 월드 프리미어 차량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했는데 막상 모터쇼에 가서 확인해보니 실질적인 월드 프리미어 차량은 한 대 뿐이었다. 국내 메이커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W-써밋'을 제외한 나머지 월드프리미어 차량들은 컨셉트카, 상용트럭, 이벤트성 한정생산 차량이었기 때문. 사실 '체어맨 W-써밋'마저도 체어맨W를 개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월드프리미어 차량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주목받을 차량 공개는 K3쿠페, 신형 K5 등 서울 모터쇼 이후에 개최되는 뉴욕 모터쇼로 미루어졌다. 국내 메이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울 모터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많은 관람객의 (모델을 빼) 관심사는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비롯한 슈퍼카와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의 초호화 차량들이다. 그러나 서울 모터쇼에는 그냥 강남대로를 걸어 다니면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들뿐이었다. 진귀하고 보기 힘든 차량을 보려면 차라리 반포, 도산대로를 카메라 둘러메고 거니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그란카브리오 MC’ 등 핫한 모델과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콰트로포르테’ 신형을 전시한 고급 브랜드 ‘마세라티’ 부스엔 모델이 없었고, 관람객이 없었다. 길에 흔하게 널린 포드 부스엔 ‘유명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힘들었다. 다들 자동차를 보러 온 건지, 모델을 보러 온 건지. 심지어 바닥에 누워서 촬영해대는 사람들까지 난리법석이었다.(보인 천년제 무대에서 여고생 댄스동아리가 춤추고 있을 때 학생들 반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 크기에 비해 자동차 문화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주최 측은 엄청난 숫자의 모델들과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주로 홍보한다. 서울 모터쇼는 ‘모터쇼’가 아닌 ‘모터쇼’가 되기 위해선 ‘제네바 모터쇼’를 본받아야 한다. 제네바 서울모터쇼보다 규모와 관람객, 모델명도 적지만, 100대 넘는 월드 프리미어 차량들이 공개되는 곳이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회사들이 이 제네바 모터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회사의 신차를 이 순간에 맞추어 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외 메이커뿐만 아니라 국내 메이커한테도 무시받는 모터쇼가 아닌, 앞다투어 신차를 전시하고픈 모터쇼로 만들기 위해 ‘서울 모터쇼’의 형식을 통째로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輔仁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들 중 한 대, 새규어 E 타입' 이 전시되어 이름을 끌었다.

2 렉서스 LF-LC 컨셉트카

3 렉서스 IS 신형

4 렌지로버 이보크

5 국내 유일 수제 슈퍼카 메이커 '스피라'의 '크레이지티'

6 폭스바겐 시로코 R

7 아우디 R8 V10

8 낫산 GT-R35 mk2

9 쉐보레 콜벳

10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11 BMW 4시리즈 쿠페 컨셉트

12 얼마전 양산되어 판매 준비중인 BMW i8 컨셉트카

13 필자도 놀랐고, 관람객들도 놀랐던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 'HND-9'. 베터플라이도어가 압권이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

브라질에서 우승컵을 차지할 20번째 주인공은?

2014 브라질 월드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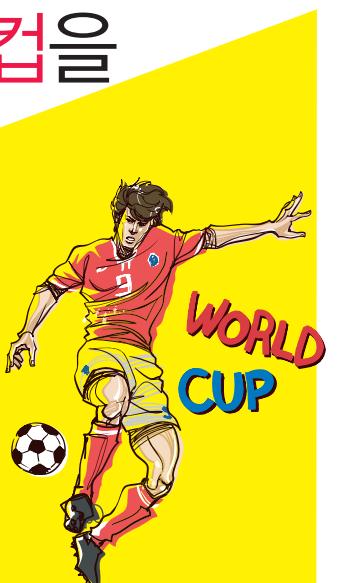
기간: 2014년 6월 13일 ~ 7월 14일 (한국 시간 기준)

개최지: 브라질

개최도시: 상파울루, 쿠리치바 등 12개 도시

참가국

- 유럽(13개국): 벨기에 · 보스니아 · 크로아티아 · 잉글랜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러시아 · 스페인 · 스위스
- 남미(6개국):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콜롬비아 · 우루과이 · 칠레 · 에콰도르
- 아프리카(5개국): 알제리 · 카메룬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나이지리아
- 아시아(4개국): 대한민국 · 호주 · 이란 · 일본
- 북중미(4개국):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멕시코 · 미국



1위,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

피파랭킹: 10위
주장: 다비드 루이스



감독: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월드컵 최고성적: 월드컵 6회 우승
키플레이어: 네이마르
관전포인트:
브라질은 과연 흄에서 7회 우승을 차지할까?

지금 축구의 대세는 스페인으로 뽑히지만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축구강국 하면 무조건 브라질이었다. 그만큼 그때에는 세계최고의 공격수로 뽑혔던 호나우두와 전성기를 보낸 미드필더 호나우주뉴와 카카가 있었고 베일한테 털린 마이콘도 있는 거의 최강의 학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2006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점점 국제무대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컨페드컵의 우승을 통해서 영원한 우승후보가 돌아왔음을 전세계에 알렸다.

특히 국제대회 3연속 우승을 한 무적함대인 스페인을 침몰시킨 것은 더 이상 스페인의 독주는 끝났음을 알린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다. 브라질이 이렇게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은 것은 성공적인 세대교차 덕분이었다. 특히 네이마르, 오스카, 루이스를 비롯한 신예선수를 비롯하여 헬크, 세자르, 다비드 루이스같은 기존의 경험있는 선수들 덕분에 신구 조합이 잘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우승컵을 안겨준 스콜라리가 감독을 맡았다.

는 점도 한 몇 한다.

브라질 축구 전술의 특징은 삼바 축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별명이고 가장 큰 특징은 현대축구에 맞춘 실리축구라는 점이다. 브라질은 거의 펠레시절부터 공격 따로 수비 따로인 4-2-2-2를 고집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현대 축구의 대세중 하나인 4-2-3-1로 바꾸었다. 브라질의 공격루트는 주로 중앙보다는 네이마르와 헬크가 있는 측면을 이용하는 편이고 그것을 있는 디리 역할을 오스카가 맡고 있다. 또한 세계 정상급 풀백인 마르셀로나 알베스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다양한 공격루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번 스페인전에서 드러났듯이 기존의 브라질의 전술과는 달리 구스타보와 포백라이언이 강한 중원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중원을 무력화시켜 빌드업을 방해하게 한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브라질특유의 개인기를 바탕으로 유럽축구의 조직력을 앞세운 축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단점은 '조'라는 낯선 공격수가 공격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퇴물이긴 하지만 파투 혹은 이번 컨페드컵에서 많은 득점을 한 프레드같은 다른 공격수의 대체와 네이마르의 캐리로 이 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현대 축구의 흐름상 확실한 원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디에고 코스타가 스페인을 선택한 것이 브라질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고 큰 손해일 것이다. 만약 컨페드컵에 이어서 월드컵에서도 결승전에 스페인과 만난다면 자국출신인 디에고 코스타에 의해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브라질 입장에서는 지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어드벤티지를 얻게 된다. 게다가 뛰어난 실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펠레가 입으로 나불대지만 않는다면 그 어느나라 보다도 우승확률이 가장 크다.

브라질 핵심 3인방



네이마르

생년월일: 1992년 2월 5일
신체조건: 174cm, 64kg
포지션: 윙포워드
소속팀: FC 바르셀로나
장점: 빠른 속력, 높은 골 결정력과 양발 키커, 다이빙 능력
단점: 가끔 개인플레이를 한다.



오스카

생년월일: 1991년 9월 9일
신체조건: 180cm, 66kg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소속팀: 첼시
장점: 수비능력과 압박을 갖춘, 빠른 드리블과 정확한 슛팅 능력
단점: 경기력 기복, 낮은 몸싸움 능력



티아고 실바

생년월일: 1984년 9월 22일
신체조건: 183cm, 79kg
포지션: 중앙 수비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장점: 세계 최고의 수비수, 빠른 속력과 몸싸움 능력을 갖춘
단점: 없다.

하기도 하지만 유로2012 이탈리아전처럼 전술이 실패하면 어이없게 무너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선수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겠다. 독일은 주로 4-2-3-1을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미드필더를 최대한 활용하는 4-5-1을 사용하는 추세다. 당연히 미드필더 중심에는 외질을 놓고 외질이 양쪽 측면으로 로빙 패스나 스루패스를 하면 빠른 속도와 돌파력을 지닌 포돌스키나 쉬를레, 로이스가 패스를 받아 조직력있게 측면공격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또한 독일의 중원은 케디라와 슈바인슈타이거가 맡고 있는데 이들 모두 패스와 압박이 훌륭한 월드 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원 중에서 가장 좋다. 수비 또한 험멜스와 메르테스카, 보이텡등 수비속도가 빠르고 몸싸움도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측면 수비는 슈멜처와 필립 람이 맡고 있는데 특히 필립 람은 세계 최정상 오른쪽 풀백이다. 이들 모두 패스능력과 속도를 갖추고 있어 오버래핑을 활발히 하여 측면 공격수와 호흡을 맞춰 공격을 펼쳐 나간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독일도 공격수 문제를 갖고 있다. 전까지 독일의 원톱을 맡은 선수는 클로제와 고메즈였는데 클로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 시즌에 부상을 많이 당해서 과연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 고메즈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 부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꼭 이겨야하는 큰 경기에서 버로우 탄은 양민학살 공격수로 평가받기 때문에 독일의 공격수를 누구로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고민거리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독일의 주된 공격루트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측면에서 로이스, 쉬를레, 포돌스키가 골을 많이 넣어 이기고 있으며 때로는 원톱자리에 득점력이 좋은 미드필더인 괴체나 뮐러를 선발시키는 저로톱 전술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 월드컵 예선에서 9승 1무 경기당 3.6골의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주며 조1위로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꾸역꾸역 많은 골을 넣기는 하지만 유로2012 이탈리아전처럼 미드필더진마저 침묵하게 된다면 독일의 우승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클로제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해 골을 넣어서 호나우도의 15골기록(현재 클로제는 14골)을 경신해서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번 독일의 키 플레이어는 외질이 아니라 클로제일 수도 있다.

비록 브라질 흄에서 열리기 때문에 브라질을 우승 후보 1순위로 보았지만 선수로 보나 조직력으로 봐도 독일 또한 이번 월드컵 강력한 우승후보이며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유로 2012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요하임 뢰브 감독이 이끄는 전차군단이 4강 단골손님이라는 별명을 버리고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하다.

2위, 완벽한 신구조합, 전차군단 독일

피파랭킹: 2위
주장: 필립 람
감독: 요아힘 뢰브
월드컵 최고성적: 1934년부터 총 4번의 우승
키 플레이어: 외질
관전포인트: 요하임 뢰브 감독의 코딱지 먹기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저번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아스날이 몇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DTD(델어질 팀은 떨어진다)를 외치면서 4위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아스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변한 가장 큰 이유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로 외질이다. 외질은 아직 하자마다 선덜랜드와의 데뷔전에서 어시스터트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아스날을 바꿨다. 비록 압박에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존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 탑클래스이다. 이 밖에도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고통수라는 별명이 붙어졌지만 유망주들 중에서 네이마르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는 괴체와 지금도 맨유와 바르셀로나와 이적설이 뜨고 있는 촉망받는 윙어인 로이스 등 요즘 축구계에서 핫한 선수들은 모두 독일인이다.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와 클럽월드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세계 최정상에 오른 클럽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고 같은 리그 소속인 도르트문트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현재 축구 중심국가는 스페인도 브라질도 아닌 독일이다.

지금 까지 독일은 월드컵을 비롯한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조별리그에서는 최고의 경기를 펼치다가 4강에서 병든 닦처럼 어이없게 떨어지는 등 유독 인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다음으로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외질, 월러, 노이어 등 남아공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며 독일의 미래를 밝혔던 어린 선수들이 지금은 성장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쉬를레와 로이스 등 신예 선수들이 독일 국대에 합류했으며 기존의 베테랑인 필립 람, 포돌스키, 슈바인슈타이거 등 실력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신구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요하임 뢰브 감독은 상대국가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독일은 특정 전술이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에서 유용

독일 핵심 3인방



메수트 외질

생년월일: 1988년 10월 15일
신체조건: 182cm, 76kg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워드
소속팀: 아스날
장점: 뛰어난 패스능력과 넓은 시야, 원발 프리킥
단점: 탈압박 능력과 수비기담이 부족



마르코 로이스

생년월일: 1989년 5월 31일
신체조건: 180cm, 75kg
포지션: 윙
소속팀: 도르트문트
장점: 빠른 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측면 돌파
단점: 공중볼 장악 미흡, 낮은 몸싸움 능력



슈바인슈타이거

생년월일: 1984년 8월 1일
신체조건: 183cm, 79kg
포지션: 중앙 미드필더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
장점: 경기 조율-패스-커팅-활동량을 모두 갖춘 독일 종원의 핵심
단점: 가끔 감정 조정을 못해 필드에서 사고를 친다.



다시 시간을 좀만 돌려 컨페드컵 전까지만 생각해도 축구 강국의 자리는 무적함대로 불리우는 스페인이었다. 비록 컨페드컵에서 브라질한테 3:0으로 충격 패를 당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각각 뮌헨과 도르트문트한테 진 것은 스페인 축구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스페인의 독주시대는 끝났음을 분명히 보여준 경기들이었다.

스페인의 독주시대가 끝난 이유는 스페인의 3연속 메이저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카시야스, 다비드 비야, 사비 같은 선수들이 나이가 서른에 가까우면서 기량이 전보다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스페인을 전보다는 쉽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 축구의 강점이자 특징은 티키타카로 불리우는 엄청난 패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좀 오글거리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스페인 축구는 공을 소유함으로써 그라운드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페인은 주로 전형적인 4-3-3을 포메이션으로 삼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습과 자공을 모두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을 펼친다. 부스케츠나 사비 알론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볼배급을 시작하면서 2대1 패스나 삼각패스를 주로 하여 천천히 상대방을 압박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의 중앙이나 측면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경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수들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을 두면서 압박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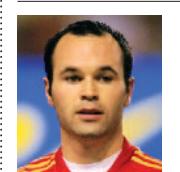
이런 전술은 2010 남아공 월드컵까지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2 유로대회에서부터 흔들리다가 이번 컨페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드러났듯이 강력하게 중원 압박을 할 경우 스페인 중원이 무너져 패스 축구를 펼치지 못해 속도무책으로 무너졌다. 물론 이런 축구를 펼쳐서 스페인은 압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스페인이 우승을 하려면 반드시 이점은 고쳐야 한다. 또한 전에는 스페인은 중앙 수비를 라모스와 푸욜 또는 피케와 푸욜이 조합에 맡겼는데 푸욜은 나이와 부상으로 인해 기량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피케는 소속팀과 국대에서 모두 형편없는 수비력(속된 말로 뚱싼다)을 보여주었고 라모스는 세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앙 수비수이기는 한데 이번 시즌 소속팀(레알 마드리드)에서 무리한 반칙으로 인해 어이없는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안타깝게도 풀백 또한 기량이 아주 좋지는 않다. 아무리 토너먼트에서는 골이 중요하지만 스페인이 수비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본

선에서 브라질전 같은 악동이 되살아날 수 있다.

다행히 스페인한테 희소식이 하나 있다. 그동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로 주전 공격수였던 다비드 비야와 토雷斯의 기량이 떨어지면서 공격수 문제를 겪었지만 디에고 코스타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에고 코스타는 현재 라리가에서 호날두와 메시와 함께 가장 훌륭한 공격수이다. 득점력은 물론 패스를 이용하는 연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또한 그가 있음으로써 기존에 하지 못했던 공중볼을 이용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며 수비수들이 그들에게 몰림으로써 미드필더에게 좀 더 많은 패스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스페인 주전 공격수는 토雷斯이다. 지금은 전성기의 품은 아니지만 유로 2008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으며 유로 2012와 컨페드컵에서 꾸역꾸역 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스페인에서 이룬 것이 많으면 버리기에는 원가 좀 아까운 계륵 같은 존재이다. 디에고 코스타와 토雷斯 둘 중에 누가 원톱으로 나올지는 전적으로 델 보스케 감독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원톱으로 나오든 그 선수가 득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스페인의 월드컵 성적이 좌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전성기에 비교하면 부족하기 하지만 다비드 실바나 마타 같은 창조적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파브레가스, 부스케츠, 헤수스 나바스 같은 젊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몇 달 전에 카시야스를 비롯하여 알론소, 사비 같은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다고 기사를 냈다. 과연 스페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들이 월드컵 2연패와 메이저 대회 연속 4회 우승을 이룰지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스페인 핵심 3인방



이니에스타
생년월일 : 1984년 5월 11일
신체조건 : 170cm, 65kg
포지션 : 미드필더(LW)
소속팀 : FC 바르셀로나
장점 : 정확한 패스 능력, 빠른 속도를 지님, 부드러운 드리블
단점 : 약한 몸싸움, 제공권 장악 불가



세스케 파브레가스
생년월일 : 1987년 5월 4일
신체조건 : 180cm, 75kg
포지션 : 공격형 미드필더
소속팀 : FC 바르셀로나
장점 : 패스 능력과 슛팅 능력을 고루 갖춘, 텔았박 능력도 뛰어남
단점 : 가끔 자신의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일명 나대는 경향이 있다



디에고 코스타
생년월일 : 1988년 10월 7일
신체조건 : 188cm, 81kg
포지션 : 센터 포워드
소속팀 : AT 마드리드
장점 : 골 결정력과 적극성이 높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단점 : 육하는 성격 때문에 불필요한 경고를 받기도 한다.

4위. 메시와 아이들, 아르헨티나

피파랭킹 : 3위
주장 : 리오넬 메시
감독 : 알레한드로 사비야
월드컵 최고성적 : 1978년, 1986년 우승
키 플레이어 : 리오넬 메시
관전포인트 : 과연 몇 골을 허용하고 몇 골을 넣을 것인가



현재 축구계의 1인자가 누구라고 묻는다면 메시 아니면 호날두라고 말할 것이다. 다행히 이 두 선수 모두 월드컵에 나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은 국내 수준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승은 힘들지만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승을 할 확률이 높다.

아르헨티나의 장점과 단점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단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누구인가? 먼저 1인자를 다투는 리오넬 메시부터 시작해서 수아레즈와 더불어 EPL 최고의 공격수라 불리는 아게로, 최고 윙어 중 하나인 디 마리아, PSG에서 활약하고 있고 정확한 크로스를 자랑하는 라베찌, 왕년에 잘나갔던 테베스, 현재 나폴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과인 등 뛰어나고 재능 있는 다양한 공격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수비는 로호, 페르난지뉴 등 피파랭킹 3위에 어울리지 않는 수비진을 갖고 있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물론 아게로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사발레타가 있지만 이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비보다는 공격을 잘하는 전형적인 윙백이다. 또한 중앙 수비를 맡는 가이라는 만유와 꾸준히 적설이 뜨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수비는 상당히 불안하고 허술하다. 솔직히 수비질하는 선수가 혜성같이 등장하지 않는 한 월드컵이 1년도 안남은 지금이 문제를 허술하게 허용하면서 공격진에서 실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골을 넣어서 경기를 이겨야 한다. 실제로 개최국 자격으로 브라질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33득점 12실점을으로 공격이 수비를 커버함으로써 9승 5무 1패의 성적으로 예선 1위를 차지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르헨티나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는 수비보다 공격을 중요시하는 학끈한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허술한 수비진의 실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으며 특히 허술한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스체라노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반드시 기용한다. 공격은 주로 짧은 패스로 이루어지며 중앙 미드필더에서 윙어로, 그리고 다시 중앙 공격수에게 이어진다. 중앙 미드필더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디마리아나 라베찌 같은 양쪽 윙어가 빠른 속력으로 측면을 돌파한다. 그 뒤 중앙에서 침투하는 아제로, 이과인 같은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르헨티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공격진 모두가 빠른 침투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펼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수비 말고 전술적으로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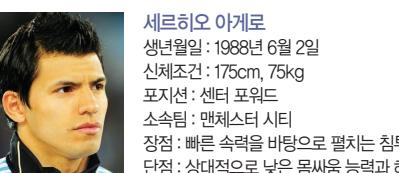
시의 위치 혹은 전술적 역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이며 아르헨티나의 없어서는 안 될 키 플레이어이다.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는 중앙 공격수를 맡아서 바르사의 득점 역할을 맡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 말고도 엄청난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 아게로가 있으며 아게로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의 피지컬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과인도 있다. 따라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메시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왼쪽 윙어가 있고 공격진들을 받쳐주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있다. 물론 메시니까 이 포지션에서도 활약을 펼친다. 실제로 83경기 출전해서 37득점을 올려 아르헨티나에서 득점 2위이다. 하지만 바르사에서의 활약에 비해서는 매우 아쉬운 기록이다. 그래서 요즘 메시를 그냥 프리롤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마라도나 감독은 메시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찾지 못해 메시는 무득점을 했고 아르헨티나는 8강전에서 독일에게 처참하게 4대0으로 무너지면서 끝났다.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도 메시의 활용도를 못 찾는다면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물건이 같다.

아르헨티나에는 전설적인 선수가 2명이 있다. 바로 마라도나와 메시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골도 넣었지만 불과 몇 분 후에는 6명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전대미문의 골을 터트리는 장관을 연출했다. 월드컵 역사상 역대 '최악의 골'과 '최고의 골'이 그의 손과 발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이 대회에서 마라도나가 이끈 아르헨티나는 서독을 3대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여론조사에서 항상 마라도나가 메시를 압도한다. 메시도 발롱도르를 4번이나 받을 정도로 이미 전설이다. 하지만 메시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월드컵 우승이다. 오래전부터 축구라이벌이었던 브라질에서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만큼,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짜릿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에게 있어서는 마라도나를 넘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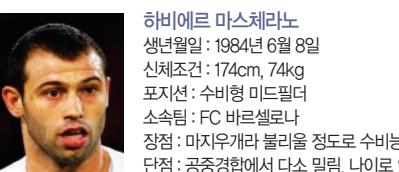
아르헨티나 핵심 3인방



리오넬 메시
생년월일 : 1987년 6월 24일
신체조건 : 169cm, 67kg
포지션 : 센터 포워드, 윙포워드
소속팀 : FC 바르셀로나
장점 : 높은 골 결정력, 빠른 부드러운 드리블, 정확한 패스
단점 : 낮은 몸싸움 능력, 단신이라 공중 볼 장악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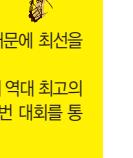
세르히오 아게로
생년월일 : 1988년 6월 2일
신체조건 : 175cm, 75kg
포지션 : 센터 포워드
소속팀 : 맨체스터 시티
장점 : 빠른 속력을 바탕으로 펼치는 침투 플레이
단점 : 상대적으로 낮은 몸싸움 능력과 헤딩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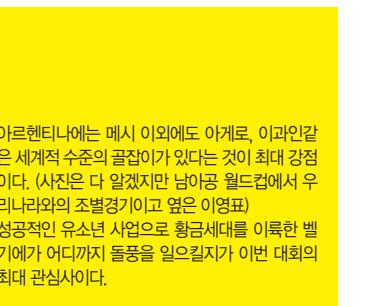


하비에르 마체라노
생년월일 : 1984년 6월 8일
신체조건 : 174cm, 74kg
포지션 : 수비형 미드필더
소속팀 : FC 바르셀로나
장점 : 마지우가라 불리를 정도로 수비 능력이 뛰어남
단점 : 공중 경합에서 다소 밀림, 나이로 인해 가끔 경기력이 떨어짐



3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스페인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 이니에스타 그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다.
4 1986년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전에서 역대 최고의 골을 넣은 마라도나. 메시는 과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마라도나를 넘을 수 있을까?





다크호스, 유럽의 붉은 악마, 벨기에
피파랭킹 : 11위
주장 : 빙센트 콤파니
감독 : 마르크 벌모츠
월드컵 최고성적 : 1986년 월드컵 4위
키 플레이어 : 에당 아자르
관전포인트 : 월드컵 본선에서 어디까지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비가 약점인데 이 때문에 펠라이니를 포함한 미드필더들의 압박과 수비 가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벨기에도 약점이 존재한다. 일단은 12년만에 국제무대에 진출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부족하며, 이것이 크게 적용될지 작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분명 경험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벨기에는 아직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으며 평균 연령이 25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중력이 경기 중간에 다른 팀에 비해 느슨해지게 된다. 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지는 몰라도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축구에서 이 점은 매우 위험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2대3으로 진 일본전에서 보여주듯이 벨기에는 경기중반에 집중력이 느슨해져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벨기에는 분명히 우승후보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킬 다크호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벨기에에 이기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무리수이고 벨기에가 확실한 경기력으로 1위를 하고 우리나라가 분투해서 2위로 같이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과연 벨기에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나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축구인들이 궁금할 것이다.輔仁



벨기에 핵심 3인방



에당 아자르
생년월일 : 1991년 1월 7일
신체조건 : 170cm, 69kg
포지션 :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소속팀 : 첼시
장점 : 정확한 패스 능력, 빠른 속도
단점 : 상대적으로 몸싸움이 낮음



마루안 펠라이니
생년월일 : 1987년 11월 22일
신체조건 : 194cm, 85kg
포지션 : 중앙 미드필더
소속팀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장점 : 평균이상의 패스 능력, 뛰어난 몸싸움과 수비 가담 능력
단점 : 킥이 정확하지 않음



빈센트 콤파니
생년월일 : 1986년 4월 10일
신체조건 : 193cm, 85kg
포지션 : 중앙 수비수
소속팀 : 맨체스터 시티
장점 : 공중볼 장악은 물론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남
단점 : 은근히 유리몸이다.

우리랑 같은 H조에 속한 벨기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붉은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별명인 붉은 악마라고 불린다고 한다. 사실 벨기에는 처음부터 강팀은 아니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끝으로 한동안 국제무대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모드리치가 있는 크로아티아를 누르고 조1위를 수성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최대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당연히 크로아티아를 놀렸다고 다크호스로 평가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언론들과 월드컵 참가국들이 다크호스로 뽑은 이유는 유소년 육성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보유했고 이로 인해 경기에서 완벽한 공수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벨기에 국가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 잡힌 플레이이다. 벨기에 선수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몸싸움과 속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거나, 역습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등 다양한 플레이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공격은 중앙 미드필더로부터 시작된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 돌파를 유도하거나, 최전방 공격수에게 '스루 패스'로 빠르게 연결한다. 벨기에 공격의 핵은 누가 뭐라해도 당연히 '에당 아자르'다. '제 2의 호날두'라고 불리울 정도로 순간 돌파 능력과 슈팅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전방의 벤테케나 루카쿠에게 공을 전달하거나 득점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맨유에서는 몰라도 국내에서만큼은 펠라이니도 전술의 핵심 중 하나이다. 패스뿐만 아니라 속력, 볼 컨트롤, 드리블 등이 평균 이상이다. 따라서 빠른 패스로 이어지는 볼 배급은 물론,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웬만한 수비 수만큼이나 수비 가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오른쪽 수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을 맡은 벤테케와 루카쿠 모두 괴물적인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타겟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격자원이다.

앞에도 말했지만 벨기에가 무서운 이유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또한 거의 완벽하기 때문이다. 주장 콤파니가 이끄는 수비진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단 4골만 내주며 8승 2무로 패배를 모른 채로 조별1위를 수성하는데 일조했다. 벨기에 수비는 콤파니, 베르마엘렌, 베르통hen이 맡고 있는데 모두 EPL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듣보잡이 맡고 있는 오른쪽 측면 수



내게 맞는 축구화는?

축구화를 구매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내게 꼭 맞는 축구화가 뭔지 모르겠다?

Hg? Sg? Fg? 그게 뭐나?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

글 · 정리 | 박영준 · 서동호

참고 사항

모든 점수는 10점 만점.

리뷰에 참고한 문헌 : 구운회 축구화 리뷰 블로그

리뷰만 믿고 사서 맘에 안 든다고 본인에게 따지지

마시길. 가격은 본인 자산 규모에 맞게 사세요

개인적인 취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축구화 보기 전에! FG, HG, AG, SG 이게 뭐예요?

매번 고운 축구화들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축구화의 스터드(缧, 징 등등)에 대해 헤쳐 보려 합니다. 아디다스 사이트의 스터드 소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STUD

발을 보호해주고 축구화의 성능을 높여주는 스터드. 그라운드 종류에 따라 적합한 스터드의 축구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변형이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따른 축구화 스터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장 적합한 스터드를 선택하세요.

인조잔디 그라운드 Artificial Ground (AG) 스터드

길이가 55mm 이상의 고무칩이 사용된 인조 잔디에 가장 적합한 스터드로, 인조 잔디에서의 접지력 향상을 위해 다른 스터드에 비해 스터드 개수가 많습니다. 맨땅에서 사용 시 지우개가 됩니다. 천연잔디에서 사용 시 접지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드 그라운드 Hard Ground (HG) 스터드

스터드의 높이와 폭이 FG에 비해 낮고 굵어 흙과 모래가 주를 이루는 그라운드(맨땅)에서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인조잔디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연잔디에서 신을 때 접지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연잔디 그라운드 Firm Ground (FG) 스터드

습기가 적고 가ഴ어 마찰력이 높은 그라운드에 적합한 스터드로 축구화를 만들 때 원판이 되는 스터드입니다. 다른 스터드 버전에서는 빠질 수 있는 축구화의 기능(ex. 구 프레데터에서의 파워스 워브)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맨땅에서 사용 시 발목 부상이나 스터드 마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사용 가능하나 스터드 부러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얘기죠. 인조잔디에서 사용해 나타난 FG제품의 이상은 A/S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



긴 천연잔디 그라운드 Soft Ground (SG) 스터드

부드럽고 무른 잔디 그라운드(유럽 잔디)나 젖은 그라운드에 적합한 스터드로 스터드 교환 가능한 금속 제품이 주를 이룹니다. 맨땅 사용 절대 금지. 인조잔디에서 사용 시 발목 부상의 위험이 있음.



짧은 인조잔디 그라운드 Turf Ground (TF) 스터드

솜이 죽었거나 길이가 짧은 인조잔디 그라운드 혹은 맨땅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제공하는 작은 원형 스터드입니다. 다른 스터드에 비해서 발의 피로도가 덜하며, 잔디가 길거나 젖은 그라운드에서 경기 시에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터드종류	AG	HG	FG	SG	TF
천연잔디	△	△	○	○	△
인조잔디	○	○	△	△	○
맨땅	△	○	■	■	○

○ : 적합

△ : 약간의 위험성(경기 중 미끄러짐, 스터드 부러짐 or 빠른 마모, 부상 위험)이 따를 수 있으나 사용 가능

■ : 불가

내게 맞는 축구화는?



축구화 전문 리뷰 블로그를 참조했기 때문에 모든 리뷰는 최상급 모델을 대상으로 합니다.



Adidas NitroCharge 1.0(나이트로차지 1.0)

나이트로차지는 최상급(선수용) 1.0부터 아마추어용인 2.0과 보급형 3.0까지 출시되었다.

- 1.0은 FG모델 정가 249,000원, HG모델 정가 239,000원.
- 2.0은 정가 139,000원.
- 3.0은 정가 89,000원.

• **디자인 8점**: 나이트로차지 모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형광색의 슬링부분과 메탈 느낌이 나는 축구화의 푸른색 바디의 조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다. 사진으로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직접 확인해 보면 정말 예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어퍼(슈팅 패드) 8점**: 얼핏 신어보면 프레데터 LZ 모델과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다. 하지만 아니라는 점. 나이키 CTR 캉가라 이트 모델보다는 얇고 질긴 느낌을 가지고 있다. 처음 착용 시 발 불이 조금 증고 발가락 끝부분이 조금 남을 수 있으나 몇번 더 신어 보면 차차 자신의 발에 맞게 변형되니 안심들 하시길.

• **내부소재 6점**: 인솔(깔창입니다.)이 매우 평범하다. 즉, 좋은 점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나쁜 점이 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색깔이 매우 탁월하므로 6점 준다.

• **아웃솔(밑창) 8점**: 나이트로차지 1.0 모델은 트랙션 2.0 아웃솔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웃솔은 아디제로에도 사용되는 아웃솔이며 아디다스에서 수시로 개선하는 아웃솔이다. 덕분에 내구성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이라고 할 만 하며, 부러짐 현상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 **추천 포지션**: 윙어, 윙포워드 중앙 미드필더 – 일단 힐 키운터와 파워슬링이 매우 매력적인 모델. 공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보내야하는 포지션에 매우 적합하다 느껴진다.

• **한줄평**: 내구성 및 착용감이 매우 우수함. 파워가 강조된 모델이라 강한 크로스 및 슈팅에 적합. 참고로 발 불이 조금 작게 출시되어서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조금 신어야 발에 착 맞을 것 같네요.



Adidas Predator Lethal Zone (LZ) 2

아디다스 프레데터 리셀 존 2 모델은 최상급(선수용)인 프레데터 LZ, 아마추어용인 프레데터 앰솔리온 LZ, 보급형인 프레데터 앰솔라도 LZ, 프레디토 LZ 네 가지로 출시되었다.

- 프레데터 LZ는 FG모델 정가 269,000원, HG모델 정가 259,000원.
- 프레데터 앰솔리온 LZ는 정가 169,000원.
- 프레데터 앰솔라도 LZ는 정가 115,000원.

• **디자인 8점**: 물론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약간 난잡(?)해 보인다. 하지만 실착해보면 사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두색상만 있는게 아니다! 현재 브라질 월드컵을 위해 출시한 삼바 컬렉션이 있기 때문이다.

• **어퍼 10점**: 일단 쫀쫀하다. 매우 쫀쫀하다. 쫀쫀함 덕분에 사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쫀쫀하다. 또한 물이나 눈에 젖어 미스컨트롤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코팅 처리도 되어있어 기능성 또한 살려내었다고 볼 수 있다.

• **내부소재 8점**: 축구화 앞부분 내부소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이 보인다. 원래 보통 앞부분 내부소재에는 미끄러운 레이온을 쓰는데, LZ2 모델은 부드러운 부직포 같은 소재를 사용,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탁월하다.

• **아웃솔 8점**: 부러짐 같은 내구성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삼각 스터드는 접지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얇은 잔디구장에서 플레이 할 시 잘못하면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다. 그러니 잘 판단해서 얇은 구장에서 할 분들은 AG나 HG를 구입하세요.

• **추천포지션**: 중앙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등 정밀한 슈팅 및 킥이 필 요한 포지션 – 접지력이 매우 우수한 점을 이용하여 순간적인 스프린트가 용이하다. 또한 미스컨트롤이 매우 적은 모델이며 덕분에 볼 간수가 생명인 포지션에는 필수적인 축구화라 할 수 있겠다.

• **한줄평**: 처음 볼때는 그로테스크하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성능은 기본이고, 내구성도 탁월하다. 신다 발목만 안 나가면 정말 좋은 축구화라 인정하겠다.



Nike HyperVenom

루이스 피구, 웨인 루니 등의 선수들이 착용하며 10년 이상 제작되던 토탈90 시리즈를 단종 시키기로 결단을 내린 나이키는, 하이퍼베놈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등장시켰다. 선수용(최상급)인 하이퍼베놈 팬텀, 아마추어용인 하이퍼베놈 파탈과 보급형 하이퍼베놈 펠론 세 가지로 출시되었다.

- 하이퍼베놈 팬텀 FG버전의 정가는 259,000원.
- 하이퍼베놈 파탈의 정가는 139,000원.
- 하이퍼베놈 펠론의 정가는 89,000원.

• **디자인 12점**(솔직히 지나치게 예쁘다): 주황색-검은색의 조화, 혹은 위 사진처럼 연두색-검은색의 조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으며, 오돌토돌한 어퍼도 이녀석의 외모에 한 뛴을 한다. 또한 힐카운터 부근에 위치한 해적모양 해골도 이 품종의 포인트이다.

• **어퍼 10점**: 섬유 위에 코팅을 하여 가벼우면서도 쫀쫀한 느낌을 잘 살렸다. 나이키에서는 이것을 “나이키-스킨”이라고 부른다. 섬유의 경량성과 유연성, 그리고 코팅의 쫀쫀함을 모두 갖춘 최강의 어퍼라 자부한다. 그리고 어퍼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나이키스킨 덕분에 CTR360의 3600이 이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도 볼 컨트롤이 잘 되게끔 제작하였다.

• **내부소재 8점**: 위에서 말한 섬유가 있지 않나. 매우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인솔은 무난하다. 쿠셔닝 등의 고급 기능은 보이지 않으나 발이 편하며 매우 가볍다.

• **아웃솔 10점**: 우수한 접지력과 안정성을 위해 원형스터드를 채택했다. 그리고 맨 앞부분의 일자 스터드는 순간가속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나이키의 신기술이다.

• **추천포지션**: 스트라이커, 포워드 – 순간가속, 볼컨트롤, 정확한 임팩트. 모두 필요한 공격수들에게 제격인 축구화라 볼 수 있겠다.

• **한줄평**: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내구성까지. 정말 나이키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필자는 나이키의 제품들이 기능은 좋지만 이쁘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아주 악동 모델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공격수 전용 축구화라는 것 정도라고나 할까.



Puma v1.11k

푸마 v1.11모델은 현재 단종되고 후속작으로 푸마 에보스피드가 출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v1.11모델을 찾고 있다. 푸마 v1.11은 선수용(최상급) v1.11SL(Super Light)모델과 v1.11모델, v1.11K(캥거루)모델 세가지와 보급형 v2.11, v4.11, v5.11로 나누어져 있다.

• **디자인 7점**: 뭐 개인적인 취향을 매우 타는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필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알 수 없기에 7점 낙타하게 준다.

• **어퍼 8점**: 캥거루 가죽. 인조 아니다 진짜 캥거루 가죽. 부드럽고, 발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욱 부드러워 진다. 하지만 필자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때문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사실이 매우 마음에 걸려서 8점.

• **내부소재 8점**: 부드러운 부직포와 충분한 스펀지 덕분에 한층 부드러운 발놀림을 구사 할 수 있음. 하지만 소재의 특성상 흙바닥이나 맨땅에서 할 시에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이다.

• **아웃솔 8점**: 기본이 사용되어 내구성이 매우 좋으며 기능성도 살렸다. 가볍고, 발모양에 따라 축구화 앞부분의 휘어짐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베이퍼8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기본을 사용한 제품이 없으므로 10점을 주고 싶으나!! 결정적으로 이 모델은 서양인의 발에 맞춘 족형을 지니고 있다. 엄지발가락이 제일 길고, 새끼발가락으로 갈수록 발가락의 길이가 짧아지는 족형. 이런 족형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척 잘 맞는 축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는 이런 족형이 드물다.

• **추천포지션**: 스트라이커 –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어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무회전 슈팅도 이루어진다. 즉, 슈팅 능력이 필수이고 매우 정확하고 파워풀해야하는 스트라이커들에게 추천한다.

• **한줄평**: 탁월한 터치로 슛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접혔다 펴지는 탄성력이 매우 우수한 기본 아웃솔로 인해 달릴 때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辅仁

MOVIE

영화
‘명왕성’을
말하다

글 | 김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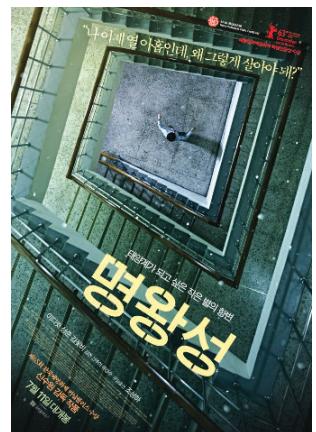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명왕성. 처음 영화 제목인 ‘명왕성’을 보고 줄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보았다. 명왕성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항성이었으나, 현재 태양계에서 퇴출된 항성이다. 아마도 퇴출된 명왕성의 특징이 주인공인 ‘준’이나 ‘유진’과 닮을 것이라고 추측해보았다. 여러 궁금증을 품고 영화를 보았다.

준은 자신이 받은 노트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비밀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기 전 다른 친구들이 자신처럼 희생하다가 끝내 가해자로 몰려버림받은 사실을 알게 된 준은 자신의 친구인 수진이와 함께 이 스터디 그룹의 실체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준의 계획을 눈치챈 스터디 그룹이 수진이를 죽여 덮어버렸다.

분노한 준은 대학입시 결과 발표날 전교 1등인 유진을 죽인 스터디 그룹들을 학교 내 지하실에 가두었다. 준은 자신이 만든 폭탄으로 인질로 삼고 경찰에게 수진이 남긴 증거물을 준다. 더 이상 어른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준은 끝내 폭탄을 터트려버린다.

결말은 준과 함께 비밀 스터디 그룹이 죽게 된 걸로 마무리됐다. 영화 ‘명왕성’은 한국 교육현실의 비극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이다. 이것이 실화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신문기사에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비판 대상은 누구일까? 물론 스터디 그룹, 그리고 유진.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준과 선생님들, 경찰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퇴출된 명왕성은 누구일까? 명왕성은 그 누구도 아닌 교육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辅仁



영화 ‘명왕성’은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초특급 사립고에 존재하는 상위 1% 비밀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평범한 소년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점차 괴물이 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하지만 그 그룹의 다른 학생들은 입단 테스트라는 명목아래 비윤리적인 짓을 준에게 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준이 고통스럽게 한 가지씩 수행해 오면, 그들은 준에게 가짜 필기노트를 줘어준다.

FOOD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하라, 고3들은 수능 공부하라 힘들것이다. 우리처럼 바쁜 고등학생이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집에 있는 자그마한 재료들로 요리를 한 번 해보자!

글 · 사진 | 설승필



바쁜
고등학생을 위한
간단요리
역전! 수능요리!

오늘 요리 토스트 핫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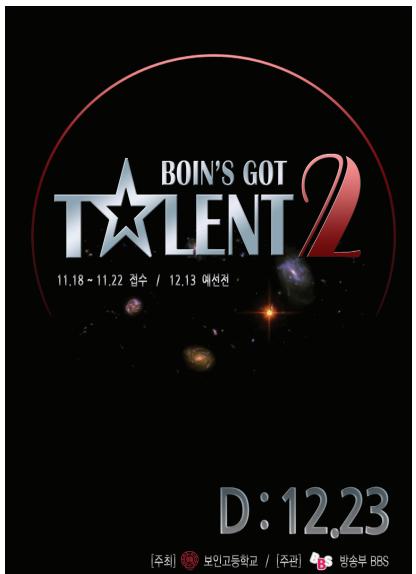
재료 토스트, 계란, 소시지, 슬라이스 치즈, 설탕, 우유, 파슬리 약간

만드는 방법

- ❶ 일단 재료는 이렇게만 준비해주세요. 설탕이랑 우유도 약간 필요합니다.
- ❷ 일단 먼저, 계란을 접시에 깨트리고 아빠술갈로 설탕 반 스푼 우유 한 스푼을 넣고 열심히 저어주세요.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 ❸ 그리고 빵의 갈색부분을 칼로 귀엽게 잘라주세요. 그 갈색부분은 배고플 때 잼을 발라 드세요^^ (집에 방망이나 밀대가 있으시면 빵을 한번 밀어주세요.)
- ❹ 이제는 빵을 아까 그 열심히 저은 계란에다가 묻혀주세요, 빵이 이쁘게 색단장을 하고 있네요.
- ❺ 소시지를 슬라이스 치즈에 슬라슬라하게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다 마셨으면 빵 위에 올리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또 빵을 말아주세요.
- ❻ 말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깜빡하고 밀대로 안 밀어서 이렇게 빵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려면 꼭 밀대로 밀어주세요.
- ❾ 빵에다 할아버지 5년간 기르신 수염이랑 다리털 올려놓은 것 같네요. 저건 빵가루랑 파슬리인데… 빵가루를 만들기 귀찮아서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게 더 멋있어 보입니다.
- ❿ 이제 조심히 달군 팬에 올려서 약불~중불 정도 되는 선에서 구워주세요. 저는 중불에서 굽다가 다 태워먹었습니다. 저처럼 태워 드시고 싶지 않으신 분은 불 조절을 확실히 하십시오!!
- ❾ 다 끝내시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기 치즈 나오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초간단 15분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고프면 시켜드리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辅仁



One + One



보인즈 갓 탤런트+ 올킬싸운드 보갓탈 1회전 탈락의 신화

*강정현 학생이 언급한 대부분의 음악들과 보갓탈 영상을 QR코드로 첨부했다.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를 제외하고 모두 라이브 영상이니 같이 보면 더욱 실감나지 않을까?



12월 23일 3시, 우리는 무대를 안고 대주관으로 향했다. '보인즈 갓 탤런트+올킬싸운드'가 열리는 날이었다. 좀 신기한 영상을 보고 시작된 첫 공연. 이른바 '기타치는 또라이'. 강정현 학생의 무대는 제법 괜찮았다. 사실 몇 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무대에 올라서 공연한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었다. 예선전을 통과했다는 자체가 실력이 있다는 증명이다. 강정현 학생에게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다시 무대를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물어보았다.

글 · 강정현 | 사진 · 방송부 BBS

안녕? 맞아 난 보인갓 탤런트에서 맨 처음에 떨어진 강정현이야. 누구는 나를 기타치는 또라이라고 소개하더군. (사실 난 그냥 착한 친구일 뿐인데 말야) 공연 당시를 생각하니까 막 민망해지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이 민망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싫었는데.

나를 조금만 더 소개하자면, 난 기타를 치고, 독서를 하는 귀티 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웃지마, 진짜 야 난 독서를 좋아해. 과학, 인문학, 사회학, 뇌과학, 교육 등 아주 많은 분야의 책을 읽지, 재밌고 유익하거든. 또 교내에서 ENT(Education and Teaching)라는 교육동아리를 창설해 부장을 맡기도 했어. 뭔가 무대에서 봤던 나하고는 엄청 멀어 보이지? 그래 그럴 것 같아, 공연도 석연치 않고 공연 전 동영상을 그렇게 찍어놨으니 내 인상이 어떻겠어!

하여튼 동시에 쾌활하고 재밌는 성격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깊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보갓탈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밀해줄 게. 난 중2 때부터 기타를 쳐온지라 평소에 밴드나 기타를 치는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특히 난 Muse의 빅 팬이야. Muse의 모든 곡을 다 알고, 공연 동영상도 엄청 보고, 최근에 뮤즈가 온 현대카드 콘서트에 갔을 정도로 말이야.

(Plug in baby 라이브를 보고 단번에 빠져버렸지), 난 Jason Mraz의 팬이기도 해. I'm yours로 입문해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한 어쿠스틱 라이브를 보고 반해버렸지.

어쨌든 이런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축제와 같은 가까운 곳에서 밴드나,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애들이 나와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밴드는 크로스로드가 하는 걸 보고 만족했지만,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없었지.

그래서 평소에도 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놀기도 해서 '내가 한번 나가 볼까?'라는 생각을은 근히 해왔어. 그러던 어느 날, 현재 2학년은 알 테지만 작년에 보이스오브보인에서(보인즈 갓 탤런트 동생 겸임) '이현성'이라는 친구가 보이스오브보인 '비밀번호486'을 혼자 기타 치며 불렀는데, MR을 깔고 거기에 원키에서 1옥타브를 낮춰 부르면서 기타소리는 거의 안 들렸어. (나중에 물어보니 리허설 때 기타만 치면서 했는데 너무 멋진다고 해서 MR을 깔았고, 시간이 없어서 키를 높이거나 낮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내가 이런 곳에 트렌디한곡을 아무지개통기타로 편곡해서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어.

Jason Mraz가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다른 악기 없이 오로지 기타와 잼베로만 십 몇 곡을 부르던 모습이 큰 자극이 되었어. 원곡을 살리면서 어쿠스틱 편곡을 해서 깔끔하고 친근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아서 난 그 공연을 보고 엄청 감탄했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봄바 유튜브에 jason mraz ebs라고만 치면 나오니까 말이야. 그래도 나갈 생각은 아주은 ~근히 있었어. 막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보인즈 갓 탤런트의 포스터가 교내에 붙기 시작했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은~근히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딱 찾아왔다. 2학년 5반에 '신동주'라는 친구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 순간 뭔가 막 자존심이 자극을 받아서 바로 같이 신청을 했지. 신동주의 무대(!)도 볼 수 있고, 뭔가 고등학교 때 공연을 한번 한다는 것이 좋은 경험 같기도 해서 팬많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부를 만한 노래가 없는 거. 옛날에 구상했을 때는 먼저 발라드가 항상 많으니까 다양한 공연을 위해서 리드미컬하고 신나는

곡으로 하면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명한 노래로 하고, 어쿠스틱 편곡을 하고, 기타 솔로도 넣고, 착착 감기는 흑과 함께 관객과 소통도 하고, 같이 박수도 치는 엄청난 무대를 구상했어. 그런데, 막상 노래를 정하려고 하니까 신나고 리드미컬하면서 어쿠스틱으로 편곡이 용이하고, 착착 감기는 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객과 소통하기 쉽고,

유명한 노래가 마땅히 없는 거야.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I'm Yours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린 것 같았고, Muse, Linkinpark, Maroon5, Greenday, Jason Mraz 등등의 노래들 중에는 안 유명하면서 신나고 리드미컬하거나, 유명한데 안 신나고 안 리드미컬했어. (Green Day - Holiday도 괜찮긴 한데, 통기타로만 하면은 노래가 너무 단조로워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감을 못 잡아서 포기했어.) 그러던 중 옛날에 '밴드의 시대'라는 밴드 경연

프로그램에서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Be My Baby'를 밴드음악으로 편곡해서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났어. 딱 떠오르는 순간, '이거다!' 느꼈지. 그래서 코드를 찾아서 몇 번 쳐보기도 했어. 그런데이 노래의 흄이 조금씩 보였어. 여자가 부른 노래라는 점, 통기타로만 하면 좀 단조로워서 편곡에 손이 많이 가야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었지.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추천 좀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었어.

그러던 중 예선전은 7일 앞으로 다가왔어. 노래를 딱 못 정해서 준비된 것도 아예 없었지. 그리고 예선전이 모의고사 바로 다음날이라서 새롭게 곡을 준비하기도 곤란한 거! 그래서 평소에 즐겨 치고 부르던 'Oasis - Wonderwall'으로 예선만 치르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1절 패턴이 2절 패턴이랑 엄청나게 유사해서 2절 부분을 좀 다이내믹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7일간의 사투 끝에 2절을 만들어냈지. 하하. 멜로디를 변칙적으로 바꾸고 기타 주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있는 고음부분을 만들었지. 예선전 당일에도 2절 후반부가 완전하지 않아서 한 시간 반 동안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다툼기도 했어. 그래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고, 실수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지.

학교에 도착하고,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어. 내 이름을 호명하고 "애 다음에 너다."라고 하니까 슬슬 손과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다들 수행평가를 하면서 발표를 많이 해봤으니까 내 심정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거야. 그 발표를 세분의 선생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안 떠는 척하고 들어갔어. 앞에는 똘똘이를 좋아하시는 분과, 음악실에서 사시는 분과, 자타공인 멋 있는 분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셨어.

그리고 앉아서 하라고 의자와 마이크가 낮게 배치되어 있었어. 난 거기서 지조있고 단호하게 말했어. "서서 할 거니까 올려 주세요." (생각해보면 이게 기타 치는 또라이라는 낙네임을 얻게 된 시작점인 것 같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하고 바로 인트로를 연주했지. 그래서 심사위원님께서 "시작한 거야?"라고 물어보셨는데, 난 나름 끄덕였다고 생각



제이슨 모라즈 'I'm Yours'
@EBS 스페이스 공감



강정현 학생이 편곡해서 부른 '갤럭시 익스프레스 · Be My Baby'

One + One



Oasis · Wonderwall LIVE



보怯タル 강정현 소개영상

했어. 그런데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완전 무시했던 라고!

내 차례가 끝나고 다른 애들 하는 걸 보다가 집에 갔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고음 쪽쪽 올리고, 비트박스하고, 마술하고 하는데 내가 좀 오징어가 된 기분이더라. 그래도 리듬미컬하고 신나는 느낌은 나밖에 없었기에,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하하하

어찌어찌해서 예선전이 끝나고, 며칠 후, 내가 불었다는 연락이 왔어! 하지만 아직도 노래를 정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어. 그냥 be my baby의 가사를 조금씩 외우는 것이 전부였지. 그러다 또 본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 리허설은 금요일인 4일 후였지.

그런데 급해죽겠는데 자꾸 학교에서 글 써야 하는 것이 생기고 그거 처리하다가 수요일이 됐어. 리허설 2일 전이 된 거야. 준비한 것이 거의 예선만큼에서 가사를 좀 더 외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코앞에 리허설이 있는 거지. 수요일도 야자를 4교시만 빼고, 실질적인 준비시간은 목요일 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 be my baby로 확정하고, 가사와 리듬을 익히고 노래하면서, 기타도 같이 연습했어. 시간이 없어서 편곡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 전에 연습할 때 리듬하고 가사를 조금씩 잘못 익힌 거야. 이 노래가 가사와 리듬이 여유가 있지 않고 딱딱 들어맞는 특성이 있어서 가사를 틀리면 리듬이 어긋나. 그래도 연습하는 수밖에!

그러다 리허설 날이 됐어. 그런데 당일도 변한 것 이 거의 없는 거야... 엄청 절망했어. 완벽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코앞에 결정적인 날이 닥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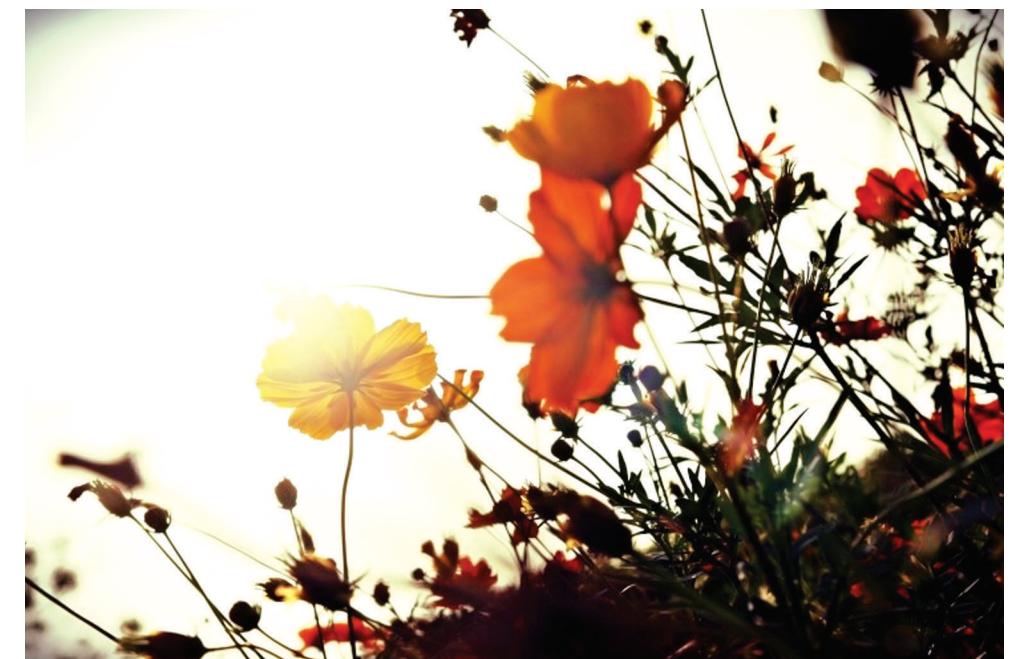
밤에 기타를 잡고 조용히 치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 기타 솔로잉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관객 유도할 부분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고음 올리는 부분을 어디다가 배치할지, 랩을 어디다 배치할지... 다 생각이 났어!! 흥에 겨워서 연습을 새벽 2시정도 까지 한 것 같아. 이때 너희들이 공연장에서 본 그 노래 구성의 틀이 거의 다 완성되었건 분명한 것 같아! 輔仁

다고 보면 돼. 공연이 3일 남은 절망 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

다음날부터 계속 편곡을 했지. 그 다음날인 공연 전날도, 10시에 일어나서 계속 연습했어. 그런데도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리지는 않았어. 망조가 보였던 거지. 새롭게 만들어낸 부분이 계속 추가되고, 그래서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기타파트를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리허설 때부터 실수했던 부분에서 가사하고 리듬이 잘못 나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 이 뿐만 아니라 랩 부분의 가사를 계속 까먹고 고음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집에서 계속 연습하려니까 아랫집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서 4시부터는 완전 조용히 읊고, 기타를 문지르면서 쳤어. 학교 과제를 하고 또 계속 연습을 하는데 가사를 계속 틀리는 거야. 한번 연습 할 때마다 두 번 이상 멈추고 그랬어. 노래방을 10시에 나와서 다급한 마음에 새벽 2시 반까지 조용히 연습하다가 잠들었어.

공연 날, 완전 피곤한 상태로 가서 학교에 가서 2시간 정도 수업시간에 자게 됐고, 머릿속에는 공연 생각이 가득했어. 불안함과 함께 점심을 먹고 기타들고 대주관으로 가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많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다 공연을 했지. 관객들이 완전히 빽빽하게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기분이 참 묘했어. 그래도 노래를 마치고 ‘생각보단 선방했다’는 생각으로 내려왔어. 근데 친구들이 다들 속도를 지적하더라.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야.

보인 갓 텔런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얻은 게 많은 것 같아. 가사를 이상하게 외우면 나중에 ‘망’한다는 점, 쫓기면서 하는 연습은 전혀 즐겁지 않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연 무대 하나가 별 것 없어 보여도, 그 뒤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야. 생각만 해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공연을 보면서도, 자동차를 보면서도, 뮤지컬을 보면서도, TV쇼를 보면서도 ‘이 뒤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깃들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 탈 많은 겨울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 輔仁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무작정 잡고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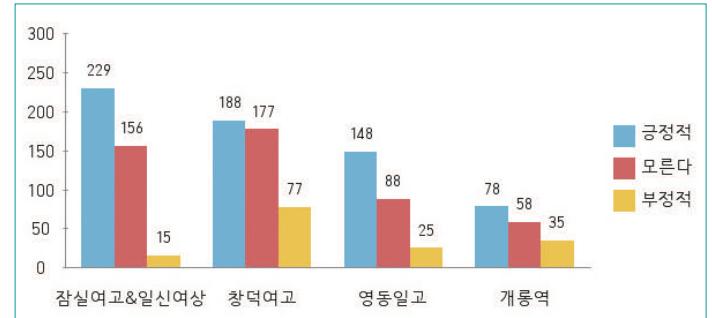
1,000명에게 알아보는 보인고의 이미지

취재 · 교지편집부 PLAYBOIN | 정리 · 서동호 (편집부장)



교지편집부 PLAYBOIN은 '당신이 생각하는 보인고의 이미지는?'이라는 앙케이트판과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여 2011년과 안타깝게도 교지에는 실리지 않았던 2012년 앙케이트에 이어 2013년에도 보인고등학교 근처 여고들과 개통역에서 보인고 이미지 앙케이트를 진행했다. 2011년 1013명에 이어 올해에는 총 1,276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진행했다.

■ 당신이 생각하는 보인고의 이미지는? (2013)



이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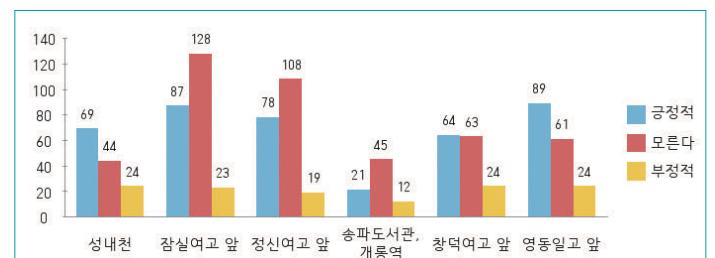
이번 앙케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표면적 변화는 보인고의 이미지가 재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총 643명으로, 이는 전체 수치에서 반절 정도를 차지하는 결과이다. 그 외에 '모른다'는 총 479명, '부정적'은 총 154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잠실여고와 일신여상의 결과이다. 위의 표와 같이 두 여자 고등학교에서의 보인고에 대한 이미지는 월등히 좋다고 할 수 있다. 옆구리가 시린 학생은 잠실여고 일신여상 학생에게 데이트라도 신청해 보는게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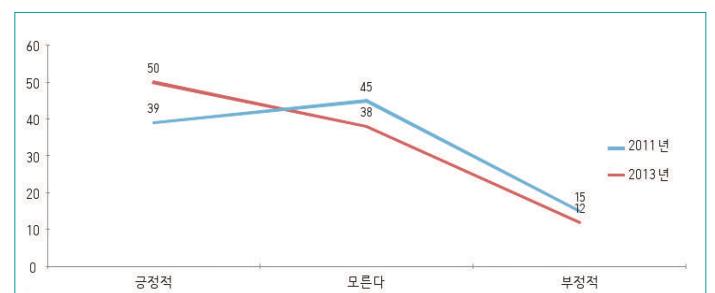
참고로 2011년, 교지에 게재되었던 보인고 외부 이미지 앙케이트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번 앙케이트를 통해 우리는 보인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담긴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2011년 보다 더욱 개선된 보인고의 이미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타 학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다. 輔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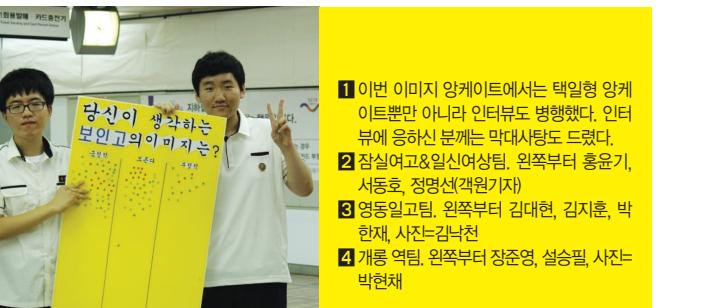
■ 당신이 생각하는 보인고의 이미지는? (2011)



'긍정적' 총 405명, '모른다' 총 452명, '부정적' 총 156명 앙케이트 조사 대상과 수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른다'가 전체 중에 약 45%를 차지했을 정도로 가장 많았던 2011년에 비해 이번 앙케이트에서는 '모른다'를 답해주신 분은 38%로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이 약 39%였던 2011년에 비해 올해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약 50%로 반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11년 15%에서 올해는 12%로 줄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장소에서 구자철 선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딨는지도 모르면서 구자철 선수가 나온 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



1 이번 이미지 앙케이트에서는 택일형 앙케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병행했다. 인터뷰에 응하신 분께는 막대사탕도 드렸다.

2 잠실여고&일신여상팀, 원쪽부터 홍윤기, 서동호, 정명선(각원기자)

3 영동길고팀, 원쪽부터 김대현, 김지훈, 박현재, 사진=김낙천

4 개통여팀, 원쪽부터 장준영, 설승필, 사진=박현재

앙케이트 내용

'긍정적'을 택하신 분들께

1. 보인고의 어떤 점이 보인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까?

잠실여고&일신여상

- 시설이 좋아서
- 집 앞에 있어서
- 자사고라서(4명)
- 보인고에 다니는 친구가 좋대서(2명)
- 보인고라는 이름이 좋아서(2명)
- 축구가 좋대요
- 아버지가 보인고를 졸업해서
- 성적이 좋아서(3명)
- 우신관이 좋대요
- 야자가 빽세대요
- 그냥 좋대요
- 중학교 때 가고 싶어했어요

창덕여고

- 야자를 잘해요(?)
- 공부를 잘해서
- 자사고라서
- 잔디구장이어서(2명)
- 구자철이 나온 학교에서
- 학생들이 성실함
- 좋은 교육환경

영동일고

- 자사고라는 점이요
- 시설이 좋아요
- 보인고 축구부요
- 공부 잘 하는거요
- 야자요
- 구자철 선수 모교인거요

개통역

- 학교 축구부가 유명해서
- 구자철 선수 때문에
- 잔디구장(학교 시설)으로 인해서
- 자기 자신(보인고가 이사하기 전) 혹은 자신이 보인고를 나와서.
- 학구열이 높아서(2명)
- 이유 없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장소에서 구자철 선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딨는지도 모르면서 구자철 선수가 나온 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

었습니다. 정말 저희 학교의 마스코트라 할 만합니다.

2. 보인고에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다면 그들은 평소 보인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잠실여고&일신여상

- 얘기를 안 해요 (4명)
- 장학금이 좋대요
- 축구가 좋대요
- 아버지가 보인고를 졸업해서
- 성적이 좋아서(3명)
- 우신관이 좋대요
- 야자가 빽세대요
- 그냥 좋대요
- 중학교 때 가고 싶어했어요

창덕여고

- 처음에는 규율도 엄격하고 야자도 빽세게 시키고 해서 싫어하고 유했는데 나중에는 공부하기에는 좋다고 말해요

영동일고

- 그냥...잘 얘기해요
- 별로... 얘기 잘 안하든데!?
- 공부 잘한다고 얘기해요
- 운동장, 잔디구장 좋다고....

3. 앞으로 보인고의 이미지를 명문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실여고&일신여상

- 보인고 애들이 다니기 싫어해서
- 머리 짧게 다녀서(3명)
- 교복 때문에

창덕여고

- 체벌
- 야자
- 길에서 보인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육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남고가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동일고

- 강제로 야자하는 거요.
- 머리 짧은 거
- 상고 이미지...(선생님 중 한 분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3. 보인고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평소 보인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 자기가 왕따다(?)
- 학교가기 싫다
- 아무 말도 안함
- 야자가 싫다
- 안좋다
- 머리규정이 세다

창덕여고

- 자부심이 강한것 같다
- 10시까지 늦게 야자를 강제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
-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 야자가 힘들다.

영동일고

- 빽세다는데
- 야자하기 힘들데요.
- 머리 자꾸 짚는다고.
- 애들 공부 잘하는데요.
- 힘들대요.
- 별로라고 해요.

4. 보인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대로 유지해요
- 두발제한을 좀 약하게 해요 (3명)
- 야자를 좀 풀어줘요 (2명)
- 땀냄새 좀 어떻게 해 주세요
- 학생부(생활지도부인 듯)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다채로운 우리 보인의 상상력

팡팡

보인고 학생 설문조사 정리 | 박한재



I, 2학년

동료
0 0

■ 잠을 때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은?

- EXO오빠들 보기(10334 황윤택)
- 내 발냄새를 맡는다.(11235 조휘찬)
- 애국가를 부른다(10929 유정우)
- 동호 생각♡(20821 이승제)
- 새끼발가락으로 문지방 차기
(20107 김민기)

- 걱정의 에어로빅(21002 강현)
- 바지를 벗는다.(20305 길호웅)
- 내일부터 오늘의 할 일을 해야지 by 권태(21220 박우정)
- 서서 잔다(20609 박종현)
- 9번째 질문에 나오는 좋은 영상을 본다.(20525 이경섭)
- 콩댄스 풀버전을 준다.(20516 박지훈)
- 방바닥에서 원드밀을 한다.(20529 이한율)
- 줄릴 때 안 자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무기명)
- 친구의 스터디 플래너를 읽는다.(무기명)

■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들 best3은?

-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10334 황윤택)
- 보인고 1학년, 2학년, 신입생(10619 서상원)
- 성적표x3(10810 김찬용)
- 교육청, 여성부, 셧다운제(10815 박서현)
- 민정원x3(10823 여봉준)
- 어떻게 3개만 뽑아...(21208 문창주)
- 이즈리얼, 루시안, 베인(20308 김성연)
- 공기, 물, 빛(이러한 요인에 노출되면 공부가 불가능함)(20105 김대현)
- 벽, 입술, 손톱(21220 박우정)
- 문준성, 김종민, 조정완(21205 김정운)
-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생각(21226 이창호)
- 김정운x3(21229 조정완)
- 돈x3(21230 채현진)
- 축구, 축구 게임, 축구 경기(20510 김진수)
- League, Of, Legend(20534 홍석현)
- 오른손, 왼손, 가운데 손(20521 오창혁)
- 내 친구, 네 친구, 친구(20503 경규홍)
- 옆 친구, 앞 친구, 뒤 친구(20531 장규현)
- 너, 나, 우리(21102 구동욱)

■Avi, wmv, pmp(20910 김현일)

- 여성, 여자, 우먼(20917 신영재)
- 신OO, O영O, OO재(20931 하재형)
- 딱풀, 가지, 바나나(무기명)
- 교자편집반x3(무기명)
- 학교, 학원, 도서관(무기명)
- 일베 저장소, 오늘의 유머, 디씨 사이트(무기명)
- 호날두, 즐라탄, 베일(워래 메시였는데 지금은 베일이 상승세이다.)
(무기명)

■ 후배들을 위해 남기고 싶은 나만의 유산은?

- EXO오빠들 스티커(10334 황윤택)
- 우신관의 낙서(10914 박준수)
- 가족에게 남길 것도 없다.(10814 박대한)
- 2달 전에 잃어버린 제도 샤프(10614 남궁한빛)
- 농구장 개구멍(10617 박현재)
- 아직도 수리되지 않은 2학년 1반 스피커 연결선(20104 김낙천)
- 우리 반 청수 도구함 속의 손걸레에 피어난 버섯 한 송이
(진짜 피었음)(21008 노시형)
- 3층 화장실 오른쪽에서 2번째 칸(21220 박우정)
- hidemyass.com(21228 장준규)
- 니들이 나 좀 쥐(20618 이상민)
- 줄게 없는데 원하면 만들어서라도 줄까?(20916 서용석)
- 단종된 하정찬 보인고 회색 부지포 마이(21109 박종빈)
- 두발규제 강화(21106 노희성)
- 한만준 쌤한테 맞아야 할 딱밤(20922 이승원)
- 망가진 우리 반 프로젝터와 스피커(무기명)
- 2학년 2반 왼쪽 두 번째 책상에 붙은 시꺼먼 껌 딱지(무기명)

■ 후배들(선배들)이 가장 무서워 보일 때는?

- EXO오빠들 욕할 때(10334 황윤택)
- 사귀자고 할 때(11236 진병엽)
- 나보다 다리 두꺼울 때(20123 이기창)
- 나보다 늙어 보일 때(20124 이연철)
- 소방차 게임 하자고 할 때(2050? 강정현)
- 전자레인지 앞의 후배들(20134 홍은택)
- 명찰 색깔이 헷갈릴 때(20310 김희덕)

■ 패딩이 클 때(21206 김종민)

- 축구하다가 공 좀 맞았다고 욕하고 갈 때(11214 배성철)
- 삐嬖했을 때(21220 박우정)
-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서 성적 말할 때(21226 이창호)
- 매점 출설 때(21202 김동건)
- 가끔씩 소리 지르시는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20621 이주용)
- 똥 살 때(20915 백대현)
- 종 치자마자 급식 받으려 뛰어갈 때(20931 하재형)
- 무섭게 생겼을 때(무기명)

■ 고3 선배를 수능 전날 포그네에서 만났을 때(무기명)

- 잠자다가 시끄럽다고 우산 던질 때(무기명)
- 수능 보러 갈 때(무기명)

■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 포토원더 쓸 때(10506 김민구)
- 급식을 첫 번째로 받을 때(10212 박정우)
- 보인고 교복 안 입고 있을 때(11235 조휘찬)
- EXO오빠들 따라다닐 때(10334 황윤택)
- 축구할 때(얼굴이 Z.Ibrahimovic가 된다.)(10622 이계림)
- 밥 먹고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면서 거울 볼 때(10406 김석진)
- 머리 각기 전(20125 이준하)
- 정자였을 때(21224 이원식)
- 얼굴 가렸을 때(20701 강경태)
- have p.p.-be+ing- will(20912 나원종)
- 존재할 때(20529 이한율)
- 소변 한 방울도 안 흘릴 때(21115 이명진)
- 없다.(20904 강병준)
- 잠 덜 깨고 거울 볼 때(무기명)

■ 수능 만점을 받았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 일웅관에서 자습(10212 박정우)
- 무단 결석, 재수 준비(하하… 희망고문도 아니고…)(11235 조휘찬)
- 김우식 여드름 짜주기(10131 정효원)
- EXO오빠들 공개 방송하기(10334 황윤택)
- 수시에서 삼육대 불어서 재수학원에 등록하러 간다.(10619 서상원)
- 엄마 보고 싶다.(10636 황재영)
- 학교에 와서 몇 몇 선생님들께 자랑한다. 태도가 어떻게 바뀌실지 궁금하다.(10135 최범규)
- 당당하게 서울대 의학과 합격한 뒤 다른 학과를 간다.(10918 서찬열)
-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고 인터뷰하기(10927 이시형)
- 학교를 부순다(10623 이준영)
- 수능 성적표로 선생님 싸대기 때리기(10621 오승민)
- 옷 벗고 동네 한 바퀴(10617 박현재)
- 성적표를 식탁위에 잘 보이게 옮겨놓고 집을 나간다.(11007 김주용)
- 나댄다.(10414 유플레이)
- 애들한테 대리시험 아니라고 해명부터… (20125 이준하)

■ 개롱 사거리에서 훌딱 벗고 교통정리(20123 이기창)

- 독도대 멀치 건조학과 지원(20110 김승훈)
- 논술 시험장 가서 시험지 뒤집고 오기(20319 송의현)
- 템스 준비(20707 김민수)
- 이마에 성적표 붙이고 2호선 대학 탐방(21214 배성철)
-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책상을 박차고 소리 지르며 나가기
(21220 박우정)
- Facebook 회원가입(21229 조정완)
- Facebook에 ‘100 100 100 50 50’이라고 올린다(20232 황인준)
- 찍는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을 만든다.(20604 김혁)
-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인터뷰 한다.(20909 강정하)
- 닉트 던져보자.(20916 서용석)
-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거절해 보고 싶다.(20601 김경천)
- 자살(20632 하재영)
- 1대100 출현(무기명)
- 일간베스트 인증(무기명)
- 배재대 정시 지원(무기명)
- 입대(무기명)

■ 학창시절에 가장 불량학생이셨을 것 같은 선생님은?

그리고 그 이유는?

- 곽광용 선생님 : 언뜻 사용하는 어휘들이 예사롭지 않으시다.
(10111 류신영)
- 김미주 선생님 : 키가 크실 뿐만 아니라 염색까지 하셨다.(21002 강현)
- 김시종 선생님 : 원기를 자꾸 시키신다.(10922 신윤상)
- 김태화 선생님 : 여기에 써도 뒤태이 없을 것 같다.(20601 김경천)
- 백기곤 선생님 : 모히칸이 잘 어울리신다.(10224 이유준)
- 백기곤 선생님 : 배에 흉터(21131 한승우)
- 백기곤 선생님 : 담배 피는 아이들이 숨긴 담배를 잘 찾아내시기 때문에(21003 권한준)
- 백기곤 선생님 : 설명이 필요 없다.(무기명)
- 백기곤 선생님 : 스스로 중동고 2짱이라고 자랑하셨다.(10802 강민준)
- 우상구 선생님 : 표정 변화가 없으시다.(10932 정윤식)
- 윤선병 선생님 : 막대기 하나로 학교를 평정하셨을 것 같다.
(10121 유형식)
- 이승은 선생님 : 그런 느낌이 난다(10434 최장호)
- 이영석 선생님 : 여자가 많았을 것 같다.(10624 이준원)
- 이영석 선생님 : 웃이 엄청나게 많다.(10834 채수환)
- 이윤호 선생님 : 꼭 말로 해야 하나… (10822 안정섭)
- 이은주 선생님 : 칙한 척하시는 게 보인다.(10323 장무송)
- 이은주 선생님 : 그냥 써봤다.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서(무기명)
- 최우영 선생님 : 말은 선생님이 먼저 거시고 시끄럽다며 교탁을 치신다(무기명)
- 없다 : 다 공부만 하셨을 것 같다.(11122 이임형)
- 질문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무기명)

1, 2학년

교과목
0 0

■보인고 선생님들 중 같은 나이였다

면 친구가 되고 싶은 선생님은?

그 이유는?

- 강이욱 선생님 : 아스날을 마음껏 비웃기 위해서(11235 조희찬)
 - 광광용 선생님 : USB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고 싶다.
- (공유 좀...)(10210 김재찬)

- 광광용 선생님 : 악파는 걸로 배틀 해보고 싶다.(10233 최현)
 - 광광용 선생님 : 시골 청년같이 친절하시다.(무기명)
 - 김현화 선생님 : 반말 해보고 싶어서(11235 조희찬)
 - 박병준 선생님 : 함께 술 흡치면서 GTA5 찍고 싶어서(21031 천우성)
 - 박병준 선생님 : 수준이 비슷해 보여서...(21214 배성철)
 - 박병준 선생님 : 혼자서 잘 놀아서(20916 서용석)
 - 백기곤 선생님 : 같이 다니면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다.(21109 박종빈)
 - 서정규 교장선생님 : 사랑해도 될까요?(20518 서동호)
 - 서정민 선생님 : 도대체 어디까지 음란한지 알아보고 싶다.
- (20126 임채민)

- 우상구 선생님 : 머리 빠지는 과정을 보고 싶다.(무기명)
- 이영석 선생님 : 같이 다니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을까?(무기명)
- 한만준 선생님 : 딱밤을 때리고 싶다.(20930 한경원)
- 한만준 선생님 : 근처에 있어도 먹을 복이 있을 것 같다.(21131 한승우)
- 한성우 선생님 : AlIniesta처럼 축구를 잘하셔서(10721 이동원)
- 아무 선생님 : 친구는 많이 사귈수록 좋다.(10419 이종민)
- 없다 : 생각하기도 싫다.(무기명)
- 나는 친구가 없다.(20503 경규홍)
- 질문이 매우 적절하지 못 합니다.(무기명)

■방에서 좋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쑥 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왼손으로 마우스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10531 정윤현)
- 발가락으로 본체 연결되어 있는 멀티 탭을 끈다.(10721 이동원)
- 그 사람이 동영상의 출처다.(11027 이희규)
- 서동호를 부른다(020211 박준범)
- 볼 시간이 없다.(20115 설승필)
- “수업 중입니다”하고 쫓아낸다.(21220 박우정)
- 나쁜 동영상을 본다.(20612 박준영)
- 놀란다.(20719 신재윤)
- 멈추지 않는다.(20534 홍석현)
- 스바라시~(20917 신영재)
- 성교육인척 필기한다.(20521 오창혁)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 강화 성공(10402 김규성)
- 점심시간 중 칠 때(10406 김석진)
- 방에서 좋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쑥 들어오지 않을 때

(21229 조정완)

- 휴지와 함께 있을 때(20516 박지훈)
- 일단 평일에는 없다.(무기명)
- 지금이 아닌 건 확실하다.(무기명)
- 점심시간에 비빔밥이 안 나왔다.(무기명)

■학교 행사 하나를 무조건 주최할 수 있다. 열고 싶은 행사는?

- 퀴어파레이드(10506 김민구)
- 보인고-피시방 연계 행사(11102 김남권)
- 선생님들과 야자타임 행사(10909 노성래)
- 쓸데없이 행사를 열지 않는다.(10632 조원삼)
- 할렘 타운 만들기(20222 장태준)
- 스트립쇼(20218 이건)
- 등교하면 한 번에 만원씩 주기(20202 김도희)
- 여고's Got Talent(20130 최민)
- 험거게임(20328 장지웅)
- 우상구T vs 심덕보T 개인기 대결(20521 오창혁)
- 오줌 멀리 싸기 대회(20518 서동호)
- 솔로 대첩(20915 백대현)

■수업시간에 주머니에서 큰 소리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슬프게도 연락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10837 최재현)
- 국제 전화다 XX:(10823 여봉준)
- 옆자리 친구에게 전화한다.(20821 이승제)
- 그 주머니는 분명 황경준 주머니이다(20117 송원호)
- 당당히 전화를 받아 선생님을 당황시켜 핸드폰을 뺏어야 한다는 것을 잊게 한다(21214 배성철)
- 짹의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준다.(20603 김혁)
- 아... 또 여자야!(20607 박성민)
- 별떡 일어나서 교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엎드려 뱉친다. 그럼 쌈이 감동하여 울컥하면서 아니라며 내 손을 잡아 주실 것이다.(20925 임주찬)
- 이거 쓴 사람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건가?(무기명)
- 내 것 내고 물귀신 작전(무기명)
- 일단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무기명)
- 비밀 요원인척 코드네임을 말하며 나간다.(무기명)
- 칭밖으로 던진다. 밀쳐야 본전이지니까.(무기명)
- 난 무음모드로만 해둔다.(무기명)



3학년

교과목
0 0

■잠 올때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은?

- 거울을 본다.(30102 고윤호)
- 잠에서 깨 수 있게 눈을 감고 자리에 그대로 엎드린다.(30109 남성우)
- 미래를 생각한다.(30709 김민희)
- 수능 생각(무기명)
- 김현화 선생님 얼굴을 상상한다.(무기명)

■후배들이 가장 무서워 보일 때는?

- 마주쳤는데 인사할 때(30112 박석목)
- 머리 빽빽 밀었을 때(30521 장동철)
- 석식 먹으러 갈 때(암보르기니 보는 줄...)(30516 은재웅)
- 요즘 후배님들은 항상 무서워서 피해 다닌다.
- 후배들이 이거보고 언짢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30805 김경철)
- 후배가 없다.(30225 정용재)
- 룰에서 베인을 선택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하고 있을 때(30605 김민규)
- 후배가 뭐 다 귀엽다(무기명)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 우와~ 여자 애들 대박 이뻐(30819 송인호)
- 만점 받아서 신문에 나오면 어떡하지?(30818 송은한)
- 작년엔 나도 응원했었는데...(30430 한승우)
- 까짓 거 서울대 가주지(30807 김민주)
- 학교가 꾸졌다.(30734 최재혁)
- 줄리다(31021 윤중영)
- 내년에 또 오겠네...(30632 조성균)
- X 마려우면 안 될텐데(30613 박인준)
- 오늘 저녁 뭐 먹지?(무기명)

■후배들에게 고3을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 늦었다고 생각할 때 4학년이다.(30101 강수민)
- 월드컵 잘 봄(30507 김재엽)
- ㅋㅋㅋ(31006 김준호)
- 다이아를 찍을 수 있는 시간(30403 김근형)
- 하지마(30606 남성우)
- ㅋ 너도 해봐 즐거웠다.(무기명)

■대한민국 고3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 공부 안하고 놀고 있어도 아무런 말이 없을 때(30109 남성우)
- 수능 몇 일 남았는지 확인할 때(30703 김동윤)
- 고3으로 살아갈 때(31024 이선중)
- 수능 직후(30419 유태훈)
- 놀 때(30609 박인우)
- 엄마 볼 때(30617 손재훈)

- 내년을 받아들일 때(무기명)
- 설문지 쓰는 지금 이 순간(무기명)

■후배들을 위해 남기고 싶은 나만의 유산은?

- 더럽혀진 일웅관 1번 자리(30101 강수민)
- 4층 오래된 방송실 안에 내 아이언맨 수트가 있다.(30102 고윤호)
- 브론즈(30407 김용현)
- 김범두 쌤의 “안되, 이 새X야”(30826 장성철)
- 내 일웅관 자리 쓰레기(30737 황도현)
- 팝스타 아리, 마녀 달달리, 파의 군주 블라디, 검은 여우 아리, 칼날 폭풍 제드, 마피아 그브, 불갈리, 메카 카직스(*) 꼭 사라 (호갱의 추천)(30419 유태훈)
- 거짓말로 도배된 선배들의 외출증(무기명)

■보인고 선생님들 중 같은 나이였다면 친구가 되고 싶은 선생님은?
그 이유는?

- 광광용 선생님 : 미친 듯한 드립력(30826 장성철)
- 광광용 선생님 : 언제 결혼하실지 물어보고 싶어서(30622 이민형)
- 광광용 선생님 : 승천하려고(무기명)
- 안병후 선생님 : 성격이 진짜 좋으시다.(30410 김혁현)
- 안병후 선생님 : 뒷목 한번 치고 싶다.(3????? 안창곤)
- 이호영 선생님 : 반말 써보고 싶다.(30425 전덕화)

■학교 행사 하나를 무조건 주최할 수 있다. 열고 싶은 행사는?

- 여고와의 솔로 대첩(30819 송인호)
- 남자들끼리는 딱히...(30426 정근양)
- 총각파티(30221 이진원)
- 광란의 남자 댄스 선발 대회(30621 김홍준)
- 술 마시기(음주제)(30709 김인희)
- 공부 대회(31024 이선중)
- 꼭 보인고에서 행사를 하고 싶지 않다.(30225 정용재)
- 연예인 만나기(30609 박인우)
- 폐교식(30632 조성균)
- 스트립쇼(무기명)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 교문을 나갈 때(30507 김재엽)
- 7시에 순간 깼는데 다시 잘 수 있을 때(30430 한승우)
- 9:50~9:55(pm)(30737 황도현)
- 전쟁(31030 이태훈)



평소에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 모두 답해준다! 선생님에게 물어봐~!

■ 오늘따라 수업하고 싶지 않을 때 해결법은?

- 곽광용 선생님 : 수업을 하기 싫다는 티를 내지 않는다. 그저 창 밖을 지나 바라보며 원가 슬픈 기억이 떠오른다는 듯 나지막히 얘기를 시작한다. “아…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13년 전 런던 유학시절이 생각나네. 그때 레이첼은… 아… 아니다 수업하자 애들이.” 이렇게 운을 띄우면, 자기네들도 거짓말인줄 다 아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아우성친다. 역시 인간은 재밌어.
- 이승은 선생님 : 단어시험을 급 본다
- 전재훈 선생님 : 그럴 리가 있나. 수업은 내 인생의 활력소라 상상할수 없다.
- 이영석 선생님 : 나는 하기 싫은 거 하는게 제일 싫더라.
- 김현화 선생님 :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 한성우 선생님 : 잔소리를 한다.
- 정지연 선생님 : 갑자기 야한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꺼낸다.

■ 애인과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 마침 보인고 학생들이 우글대고 있다면?

- 이승은 선생님 : 소개시킨다
- 이영진 선생님 : 무조건 피하고 본다.
- 전재훈 선생님 : 깔깔대고 웃으며 애들에게 자랑한다.
- 이영석 선생님 : 애인은 없고 애는 둘이다.
- 이영인 선생님 : 인사를 시키고 멀리 떠난다.
- 김현화 선생님 : 안녕~
- 김용진 선생님 : 쿨하게 무시
- 정지연 선생님 : 인사시키고 같이 밥먹는다.

■ 이런 수행평가 한 번 해보고 싶다!

- 이승은 선생님 : 영어 연극 공연
- 전재훈 선생님 : 학생마다 하루 날 잡아서 하루종일 역사 인물 코스프레 하는 수행을 하고 싶으나 매년 특정 인물 경우 분장이 필요없는 학생이 있어 (간디같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중이다.
- 이영인, 이윤호, 한성우 선생님 – 학생이 수업을 진행
- 이영석 선생님 : 관상보기
- 김현화 선생님 : 과학 마술쇼 수행평가
- 김용진 선생님 : 교외 출타 수행
- 류신형 선생님 : 소설을 영화화 하기

■ 이런 동아리, 내가 만들면 대박날 것 같다!

- 곽광용 선생님 : 상황극 동아리, 상황극을 발전시켜 연극도 만드는 동아리다. 동아리 이름은 ‘모두의 머리에서 샘솟게 하자’는 의미의 ‘개두립’(모두 뱀, 머리 頭, 샘솟을) 정도가 좋겠다.
- 이승은 선생님 : 동아리는 별로… =_=

• 전재훈 선생님 : 자율학습 동아리, 학습법/발달심리학/행동주의 심리학 연구한 후 두 시간 동안 자습 실시.

- 한성우 선생님 : 쓰리쿠션 동아리
- 채성민 선생님 : 학생 인권 연구회 동아리
- 김용진 선생님 : 연합 댄스 동아리
- 류신형 선생님 : 고전영화 감상반
- 정지연 선생님 : 이미 대박을 기대하고 복싱반 맙아서 하고 있어요.

■ 친구가 보인고등학교 교사로 들어오겠다면 해주고픈 말은?

- 곽광용 선생님 : 정말 즐거운 곳이야. 그러니까 나만 즐길 거야. 넌 오자마!
- 류신형 선생님 : 아이들이 좋다. 좋은 선택이다.
- 이영인 선생님 : 적극 추천.
- 전재훈 선생님 : 허… 거참…
- 이영석 선생님 : 기쁨을 나누면 반이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배가 된다.(?)
- 한성우 선생님 : 웰컴!
- 김용진 선생님 :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만약 교시를 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 이승은 선생님 : 코디네이터
(왕빠순이였고 토니오빠 코디가 꿈이었음 ㅋㅋ)
- 전재훈 선생님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나 잘 안팔리는 판타지 소설가
- 이영인 선생님 : 공무원 (안정적이라 성격에 잘 맞음)
- 이영석 선생님 : 변호인. 영화보면 답이 나올 듯
- 이윤호 선생님 : 음식점(깨끗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난거 좋아하기 때문.
- 김용진 선생님 : 사기꾼
- 이호영 선생님 : 경찰이나 검찰 사무직. 원래 관심 있던 진로였음.
- 김현화 선생님 : 화학 분야 연구원 or 교수 – 연구가 재밌었음.
- 류신형 선생님 : 여행 작가 – 여행을 많이 떠날 수 있어서.
- 정지연 선생님 : 국제 회의 전문가
- 채성민 선생님 : 회사에서 매일 회식 중



조국

낳아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하니
지. 덕. 체. 나무에는
사랑이 주렁주렁

모진 비바람 몰아치고
침략으로 상처나도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어버이

한 발짝도 옮기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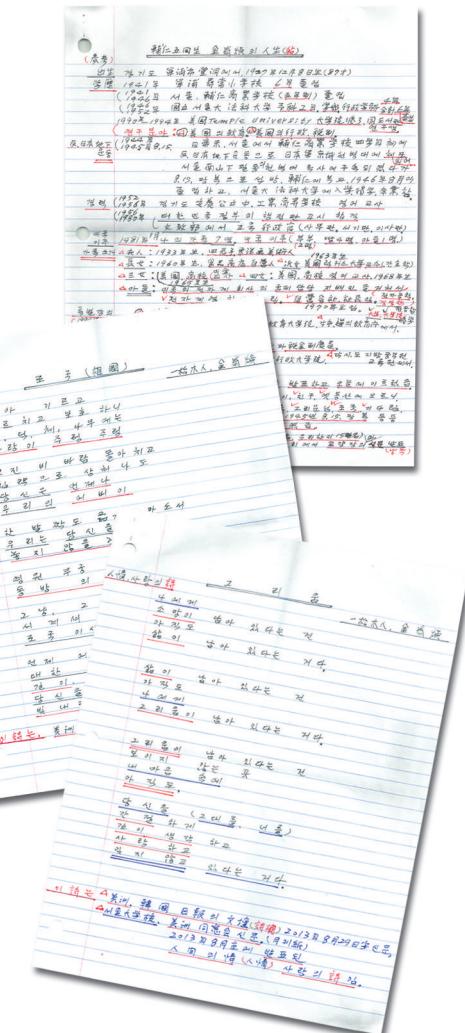
영원무궁하소서
동방의 등불로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셔 주소서. 굳건히
조국이시여!

언제 어디서나
대한 사람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거다.

일송목인 김태환 동문

- 경기도 군포시 당동 출생(현재 88세)
- 보인상고 5회 졸업
- 국립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경기도 안양공립중, 공업고등학교 영어교사
- 1956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문교부 교육행정관 근무
- 1981년 미국 아주
- 1990년-1994년 미국 텁풀 유니버시티 대학원 수료
- 현재의 삶 : 2000년도부터 시를 쓴 것을 발표하고 오늘에 이르렀음. 이후 이곳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인구 350만 명. 우리 한인 15만 명)의 한인회 모임, 각 한인 교회에서 교양 강의와 시문 발표(낭독) 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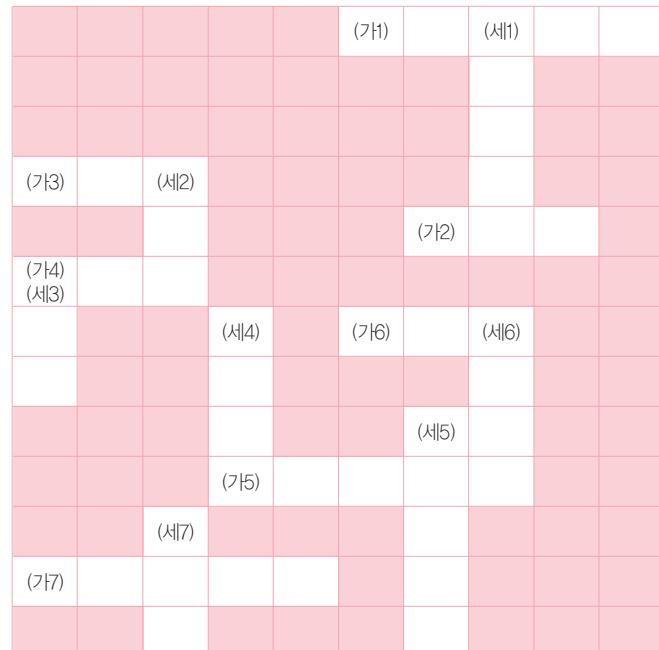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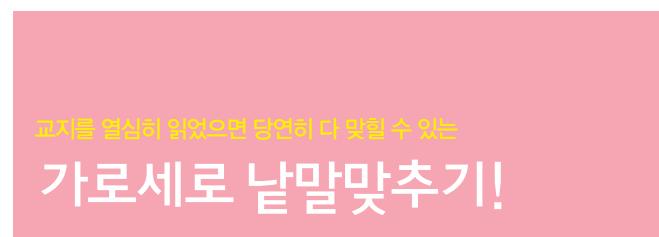


■2013학년도 1학기 학급 정부회장

	1학년		2학년		3학년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1반	김우식	여인규	박찬동	이기창	박석록	김승환
2반	윤여찬	김기완	정진성	김승현	최주호	김범우
3반	김봉균	함창수	선종현	송의현	정재호	설원진
4반	이준범	김민수	채제우	한병훈	박찬훈	정찬호
5반	이원주	허인행	오창혁	이경섭	노규현	김준희
6반	하상준	김윤호	정욱진	허재영	박준호	명승주
7반	하상범	선창우	김동찬	이지우	소중정	박유승
8반	여봉준	문형원	함영민	정지훈	김경수	송은한
9반	정윤식	이시형	김기연	김선권	송무연	김민기
10반	이주영	조항혁	박상범	노시현	이권문	옥동은
11반	정선호	이임형	임명섭	민병훈	최병준	황영진
12반	심규민	진병엽	허오녕	배성철	이현진	이상민

■2013학년도 2학기 학급 정부회장

	1학년		2학년		3학년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1반	권도훈	정효원	송민석	홍은택	고윤로	장재호
2반	송호원	임성록	한석진	심완기	정용재	이진원
3반	이성권	이원재	정성준	이철민	김재환	김지호
4반	김민준	김용연	장성호	윤우성	안웅렬	봉준성
5반	김익희	이동준	김재석	서동호	홍주성	유상호
6반	나윤상	황재영	이영준	박종현	강민수	최진우
7반	박준용	김종민	이진형	백승명	안규하	정병찬
8반	김선진	강영준	이승협	김진성	김경철	최진혁
9반	김태현	손창근	강동윤	강병준	이석현	민성웅
10반	김주용	민동욱	방승현	이현성	박병진	이태훈
11반	박지원	박진호	박강욱	이지영	이상준	이민석
12반	이도현	이반석	김동건	이웅희	한동규	서영재



〈가로열쇠〉

- 한만준 선생님께서 대학 시절 봉사하셨던 보린원 이름
- 보인고등학교 제 8대 학생회장 이름
- 1학년 학생들은 일본에 갈 때 김포,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000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보인고 인성관 사감 선생님 성함
- 크로스로드 인터뷰에서 2학년은 1학년 부원들의 연주 실력을 보인고 잔디밭의 검은 00000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인고 창의적체험활동 (발련티아)의 일환으로 3박 4일간의 봉사활동을 이곳에서 수행한다.
- 보인고 죽제 2부, 공연의 첫 번째 순서는 이 동아리였다.

〈세로 열쇠〉

- 보인고등학교 축제의 정식 명칭
- 보인고등학교 밴드부 CROSSROAD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성함
- 보인고등학교 청소노동자 아주머니의 성함
- 보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PLAYBOIN이 실시한 이미지 조사 앙케이트에서, 보인고 이미지가 가장 좋게 나온 여고
- 매점 누나가 매점에서 일하시기 전 직업
- 1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들렀던,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서민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번화가의 이름
- 보인고 죽제 2부 공연에서 4인조로 나온 팀 이름

*정답을 모두 맞히신 선착순 10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단 3월 첫째 주 안에 서동호(3-4)를 찾아오세요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입생도 환영합니다

